

보험동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추이 분석 및 시사점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법률(가칭)과 보험산업

◆ 보험산업 개관

◆ 보험산업 환경

◆ 보험지표 동향

◆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결과 및 영향
퇴직연금 2006년도 2월말 영업실적
FY2005 상반기 보험모집조직 경영효율분석
해약환급금 지급기준 및 표준이율 산출식 개선
2005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 해외보험 동향

미국 동향
EU 동향
일본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목 차

테마진단	1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주이 분석 및 시사점	1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법률(가칭)과 보험산업	12
보험산업 개관	20
보험산업 환경	23
1. 해외 경제	23
2. 국내 경제	25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27
보험지표 동향	29
1. 보험산업 총괄	29
2. 생명보험	31
3. 손해보험	42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53
1.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결과 및 영향	53
2. 퇴직연금 2006년도 2월말 영업실적	57
3. FY2005 상반기 보험모집조직 경영효율분석	60
4. 해약환급금 지급기준 및 표준이율 산출식 개선	62
5. 2005년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65
해외보험 동향	66
1. 미국 동향	66
2. E U 동향	76
3. 일본 동향	90
통계표	95

테 마 진 단

◆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추이 분석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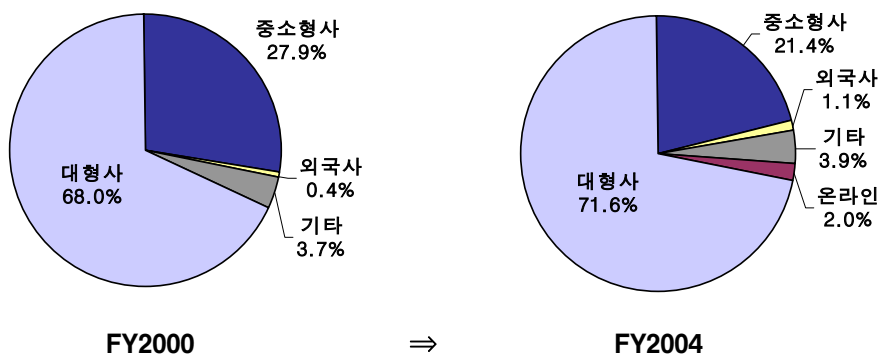
조혜원 선임연구원

1. 머리말

손해보험 종목별, 회사그룹별 성장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고, 회사그룹별 상품포트폴리오 및 판매채널 활용도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소형사 시장 위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손해보험 산업은 종목 및 회사그룹별 성장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은 건강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저축성보험 매출신장에 힘입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반면, 자동차보험과 특종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 한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의 점유율이 꾸준히 확대되고 온라인 전업사의 자동차보험 시장 진입 등으로 중소형사의 점유율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FY2000~FY2004)



자료: 각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년도.

- 이 보고서에서는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추세 변화에 있어서 회사그룹별(대형사, 중소기업사, 외국사) 기여도를 살펴보고, 회사그룹별 상품포트폴리오 및 판매채널 활용도 검토를 통하여 중소기업사 시장 축소의 원인을 분석,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장기손해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을, 일반손해보험은 보증보험을 제외한 화재, 해상, 특종보험 실적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음.
- 대형사는 상위 4개사, 중소기업사는 전업사(보증보험, 재보험, 온라인 자동차보험)를 제외한 6개사¹⁾, 외국사는 외국재보험사를 제외한 6개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온라인 자동차보험사 3개사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취급하였음.
- 분석에 사용된 통계는 FY2005부터 업무보고서 집적 양식이 변경됨에 따라 판매채널별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여 FY2000~FY2004까지의 연간 데이터를 사용하였음.
 - FY2005 3/4분기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대형사 71.4%, 중소기업사 21.0%, 외국사 1.3%, 온라인전업사 2.3%, 기타 4.0%로 앞서 설명한 손해보험 산업 성장 양극화 현상에 부합함.

2. 종목별 성장추이 및 회사그룹별 기여도 분석

최근 장기손해보험 성장은 대형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에서는 온라인전업사, 일반손해보험에서는 외국사가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

가. 장기손해보험

- 최근 장기손해보험 성장세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는 대형사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사는 오히려 고성장 종목인 장기손해보험에서 성장이 둔화되어 점유율이 잠식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전체 손해보험에서의 점유율이 꾸준히 확대되어 FY2004 46.8%를 기록하고 있음.
- 대형사는 FY2004 약 8조 7천억원의 보험료를 거수하고 최근 4년간 연평균 12.3%의 성장률을 나타내어 장기손해보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1) FY2000은 리젠트화재를 포함한 7개사 실적임.

- 점유율도 FY2000 72.7%에서 대폭 증가하여 FY2004에는 80.2%로 약 7.5%p 확대됨.
- o 외국사의 경우에는 FY2000까지 장기손해보험의 판매비중이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 판매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임.
- o 반면, 중소형사는 FY2004 2조 1천억원의 원수보험료로 4년간 연평균 0.5% 성장하는 등 장기손해보험에서의 성장이 매우 저조함.
- 시장점유율도 FY2000 27.3%에서 FY2004 19.4%로 크게 하락하면서 최근의 장기손해보험 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표 1> 회사그룹별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구분	FY2000	FY2002	FY2004	변화 ¹⁾	성장률 ²⁾
대형사	54,886	71,350	87,242	32,356	12.3%
	72.7%	78.1%	80.2%	+7.5%p	-
중소형사	20,648	19,824	21,093	445	0.5%
	27.3%	21.7%	19.4%	-7.9%p	-
외국사	4	147	439	435	220.1%
	0.0%	0.2%	0.4%	+0.4%p	-
전체	75,539	91,321	108,775	-	9.5%
	100.0%	100.0%	100.0%	-	-

주: 1) 변화는 (FY2004 - FY2000)임.

2) 성장률은 FY2000~FY2004년 4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임.

자료: 각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년도.

나.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은 온라인 전업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그룹들의 점유율이 모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소형사는 FY2000~FY2004 연평균 3.6%의 저조한 성장률을 나타내었음.
- o 회사그룹별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은 중소형사가 3.7%p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내었고, 대형사의 경우 1.7%p 감소하여 온라인 전업사 점유율의 대부분이 중소형사 점유율을 잠식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사는 자동차보험에서의 시장점유율이 FY2000 70.1%에서 FY2004 68.4%로 1.7%p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평균 6.3%의 성장률을 나타냄.
- 반면, 중소형사는 원수보험료 성장률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업사로 많은 계약이 이탈되고 있어 점유율 또한 축소되었음.
- 특히, 중소형사의 경우 온-오프라인 상품을 모두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기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도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됨.

<표 2> 회사그룹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구분	FY2000	FY2002	FY2004	변화 ¹⁾	성장률 ²⁾
대형사	45,537	55,663	58,246	12,709	6.3%
	70.1%	70.3%	68.4%	-1.7%p	-
중소형사	19,337	21,677	22,260	2,922	3.6%
	29.8%	27.4%	26.1%	-3.7%p	-
외국사	110	191	151	41	8.3%
	0.2%	0.2%	0.2%	-	-
온라인전업사	-	1,607	4,552	4,552	68.3% ³⁾
	-	2.0%	5.4%	5.4%p	-
전체	64,983	79,138	85,208	20,224	7.0%
	100.0%	100.0%	100.0%	100.0%	-

주: 1) 변화는 (FY2004 - FY2000)임.

2) 성장률은 FY2000~FY2004 4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임.

3) 온라인전업사의 성장률은 FY2002~FY2004 2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임.

자료: 각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년도.

다. 일반손해보험

- 보증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의 시장점유율은 11~12%대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형사 및 외국사는 일반손해보험에서 꾸준한 성장을 나타내는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성장이 정체되어 있음.
- 일반손해보험에서 회사그룹별 성장 추이 및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최근 수 년간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외국사의 경우 일반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결과, 성장이 급증하여 점유율이 대폭 확대됨.
 - 즉, FY2000~FY2004 연평균 40.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FY2004에는 7.0%의 점유율로 지난 4년간 약 2.5배 가까이 점유율이 확대됨.
- 대형사도 연평균 15.6%의 성장을 나타내었고 FY2004 시장점유율 71.4%로 일반손해보험에서도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시키고 있음.
- 반면에, 중소형사는 일반손해보험에서 연평균 0.8%의 성장률로 성장이 정체되었으며, 점유율도 FY2000 33.1%에서 FY2004 21.4%로 약 11.7%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표 3> 회사그룹별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구분	FY2000	FY2002	FY2004	변화 ¹⁾	성장률 ²⁾
대형사	11,660	18,211	20,841	9,181	15.6%
	64.0%	69.2%	71.4%	+7.4%p	-
중소형사	6,041	6,941	6,244	203	0.8%
	33.1%	26.4%	21.4%	-11.7%p	-
외국사	523	1,133	2,040	1,518	40.6%
	2.9%	4.3%	7.0%	+4.1%p	-
기타	-	24	64	64	64.5% ³⁾
	-	0.2%	0.2%	+0.2%p	-
전체	18,224	26,308	29,189	10,966	12.5%
	100.0%	100.0%	100.0%	100.0%	-

주: 1) 변화는 (FY2004~FY2000)임.

2) 성장률은 FY2000~FY2004 4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임.

3) 기타의 성장률은 FY2002~FY2004 2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임.

자료: 각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년도.

- 외국사는 특히 특종보험에서 점유율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특종보험의 지속적 시장 성장세를 감안할 때 향후 외국사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특종보험에서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FY2004 9.0%를 나타내며 점유율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이와 반대로 중소형사는 특종보험에서 점유율이 FY2000 24.3%에서 FY2002 19.6%, FY2004 18.4%로 계속 감소되고 있음.

<표 4> 회사그룹별 특종보험 원수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구분	FY2000	FY2002	FY2004	변화 ¹⁾	성장률 ²⁾
대형사	7,974	12,443	14,711	6,737	16.5%
	71.7%	74.5%	72.3%	-	-
중소형사	2,709	3,278	3,751	1,042	8.5%
	24.3%	19.6%	18.4%	-	-
외국사	443	968	1,821	1,378	42.4%
	4.0%	5.8%	9.0%	-	-
기타	-	24	64	64	63.3% ³⁾
	0.0%	0.1%	0.3%	-	-
전체	11,126	16,713	20,347	9,221	16.3%
	100.0%	100.0%	100.0%	-	-

주: 1) 변화는 (FY2004~FY2000)임.

2) 성장률은 FY2000~FY2004 4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임.

3) 기타의 성장률은 FY2002~FY2004 2개년 compound annual growth rate임.

자료: 각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년도.

3. 회사그룹별 상품 포트폴리오 및 판매채널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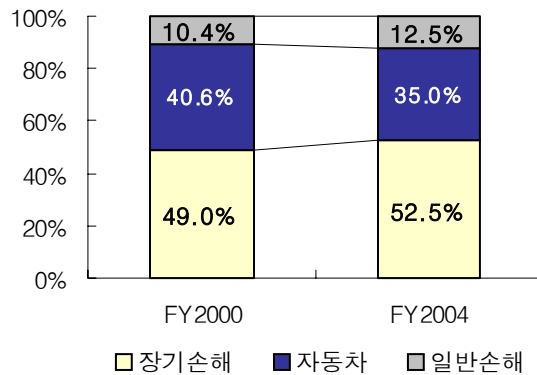
대형사는 전통채널을 활용한 장기손해보험 위주의 상품 구성, 외국사는 일반손해보험 중심으로 T/M과 C/M, 방카슈랑스 등 신판매채널 활용 비중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 반면, 중소형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는 최근 장기손해보험 성장 추세에 반하는 구성을 보이며 신판매채널 도입효과도 미미함.

가. 회사그룹별 상품 포트폴리오

- 대형사의 경우에는 장기손해보험 위주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사하면서 자동차보험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어 최근의 손해보험 종목간 성장 격차 현상을 주도함.

- FY2004 대형사의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52.5%로 FY2000에 비하여 3.5%p 확대된 것으로 미루어 대형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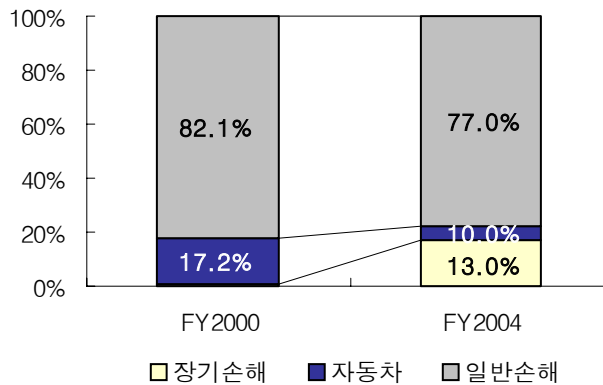
<그림 2> 대형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



자료: 각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년도.

- 외국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보면, 일반손해보험 점유율을 70%~80%대로 꾸준히 유지하며 일반손해보험에서의 위치를 굳히고 있음.
- 일반손해보험에서 외국사의 점유율 확대 추세는 최근의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 양극화와 상관없이 기업보험 중심의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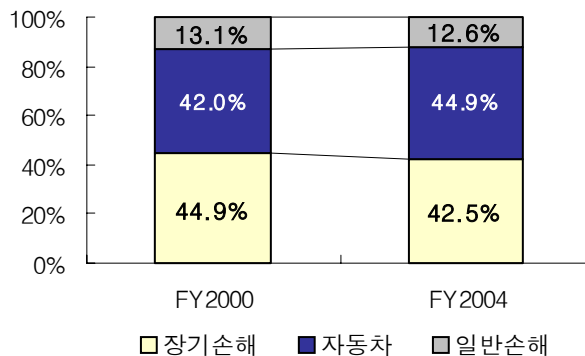
<그림 3> 외국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



자료: 각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년도.

- 반면, 중소기업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의 장기손해보험 급성장 및 자동차보험 성장 둔화 추세에 반하는 구성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장기손해보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에서 중소기업사의 비중이 오히려 축소되어 동 보험종목에서 중소기업사의 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FY2000 장기손해보험 비중이 자동차보험보다 다소 높았으나 FY2004에는 자동차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중소기업사는 상품 포트폴리오에서 자동차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자동차보험 도입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온라인 전업사로의 계약 유입 현상 등 자동차보험에서의 경쟁력은 저하되고 있음.

<그림 4> 중소기업사의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



자료: 각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년도.

나. 회사그룹별 판매채널 활용도

- 2002년말 교보자동차(주) 설립, 2003년 11월 방카슈랑스 도입 등으로 손해보험 산업에도 신판매채널로 인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소기업사의 경우 이러한 신판매채널의 도입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
- 대형사의 경우 신판매채널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전통채널 위주의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국사는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등 신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외국사의 경우 장기손해보험의 29.2%는 T/M채널, 11.0%는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하였고, 일반손해보험의 26.9%를 T/M채널을 통해 판매함.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통채널의 생산성은 대기업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면서 신판매채널의 비중이 FY'04 4.4%에 불과하여 채널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자동차보험에서 온라인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T/M 및 C/M 채널 점유율은 6.24%에 그침.
- 뿐만 아니라 장기손해보험 및 일반손해보험에서의 방카슈랑스 점유율도 2%대로 방카슈랑스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표 5>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FY2004)

구분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T/M 및 C/M	방카슈랑스	기타
대형사	8.8%	37.4%	49.9%	0.1%	2.2%	1.5%
중소형사	4.7%	36.9%	52.0%	2.9%	1.5%	2.0%
외국사	12.0%	12.5%	43.7%	25.8%	2.1%	3.9%

자료: 각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년도.

4. 시사점

중소형사 시장 위축의 원인으로 첫째, 성장 주도 상품이 없다는 점과 둘째, 적절한 채널전략을 구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이에 목표고객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상품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부합하는 종목별 채널전략 수립이 요구됨.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손해보험 시장은 종목간 성장이 양극화되고 온라인 전업사의 등장, 신판매채널 도입 등 경쟁구도가 다양해지면서 회사그룹별 성장에도 차이를 보이며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향후 손해보험 산업은 노령화 진전에 따른 장기손해보험 성장세,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확대 등이 예상되면서 종목간 성장 격차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더불어 생명보험의 실손보상 허용 등 건강보험 시장에서 경쟁이 예상되며, T/M 및 C/M 등 온라인 채널과 방카슈랑스가 정착되고 생손보 교차판매가 허용되는 등 판매채널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하에서는 대형사의 브랜드 마케팅,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으로의 계약 이탈 등에 따라 경영압박을 겪고 있는 중소형 손보사들의 부진한 성장 원인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가. 상품 측면

- 최근 중소형사의 성장 부진의 원인으로 첫째, 중소형사는 성장을 주도하는 상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대형사는 장기손해보험 위주의 성장으로 점유율 확대, 외국사는 일반손해보험 중심의 마케팅으로 점유율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음.
 - 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소형사의 경우, 손해보험 전체 성장의 중심인 장기손해보험을 비롯하여 최근 전 종목에서 점유율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중소형사의 경우, 보험산업 전체의 성장 트렌드에 무조건적으로 편승하기보다는 명확한 목표고객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상품 전략이 필요함.
 - 우선 고령화의 진전으로 건강보험, 연금 등 노후 관련 보험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므로 장기손해보험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며, 신판매채널을 활용한 단순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판매가 용이한 상품을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함.
 - 자동차보험은 당분간 저성장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에서의 점유율 확보는 중요할 수 있음.
 - 단, 중소형사의 경우, 온라인 상품에 맞서는 무분별한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대형사의 브랜드 파워, 온라인 전업사의 저가 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가격의 특화상품, 고객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또한, 회사간 보상조직의 공유 또는 아웃소싱 등 비용절감방안을 확충하고, 신판매채널에 대한 정확한 비용산출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일반손해보험에서는 고객의 새로운 보험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특종보험과 같은 신규 상품에서의 시장 선점을 통한 전문화 전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나. 판매채널 측면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형사는 주력 상품의 부재 외에도 적절한 채널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중소형사의 경우에는 차별화된 상품 전략에 부합하는 종목별 채널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각 사별로 전통채널 및 신채널별 효율성을 측정하여 최대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즉, 장기손해보험 상품구조에 따라 전문 설계사 채널 또는 저렴한 신채널을 각기 다르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함.
 - 자동차보험 판매에 있어서도 다채널 전략을 추구하는 회사의 경우 온-오프라인이 공존할 수 있는 채널 재정비 작업이 필요함.
-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으로 향후 은행, 증권, 보험의 판매조직간 경쟁이 심화되고, 2006년 8월말부터 생손보간 교차판매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타금융권에 비하여 경쟁력있는 전문화된 판매조직 육성을 기반으로 완전판매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고객관리 능력 배양이 필수적임.

◆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법률(가칭)과 보험산업

이태열 동향분석팀장

1.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법률(가칭)의 추진

정부가 자본시장과 관련한 업종을 통합하는 이른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 법률의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06년 2월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법률(가칭)²⁾(이하 자본시장 통합법이라 약칭함)의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자본시장 및 관련 산업의 선진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증권, 자산 운용, 선물, 종합금융, 신탁업 등 투자 관련 법을 통합하고 파생상품, 비정형간접투자 등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를 포괄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이 하나의 기준과 체제 하에 정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준과 체제의 통일은 종목 간 칸막이의 제거를 의미하며 이는 곧 상호 경쟁을 통한 강자의 출현을 유도하고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 통합법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보험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 현재 금융시장 통합법과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은 보험을 포함하는 타 업권 관련 법률의 형식뿐만 아니라 업무의 범위 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2) 이하에서는 자본시장 통합법으로 칭함.

2. 자본시장 통합법의 특징

자본시장 통합법은 금융투자 관련 업종을 기능별 규율 체제로 재정비하고 포괄주의 체제 도입 및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금융투자업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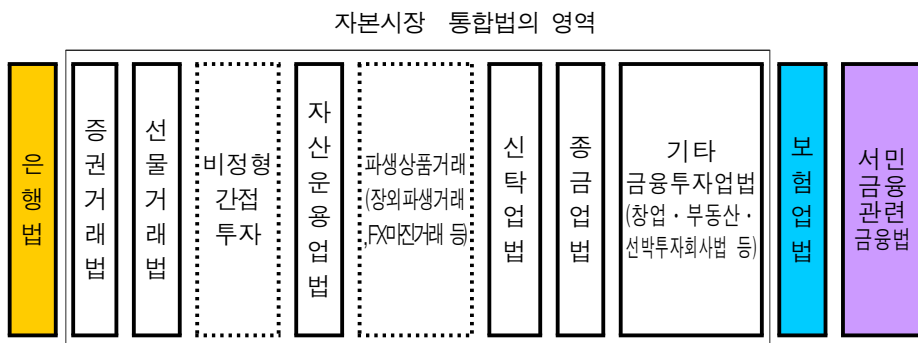
- 자본시장 통합법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투자금융 관련 법체제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능별 규율 체제의 도입 : 금융투자 업종의 구분을 매매, 중개,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자산보관관리 등 기능별로 나누고 동일 기능에 대해서 동일한 규율을 적용
 - 국경간 거래를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외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기능별 규율 원칙 하에 적용 대상과 방법을 설정
 -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 금융투자 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모든 금융투자 상품을 규율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주의 체제로 전환하고자 함.
 - 금융투자상품을 증권, 장외 파생상품, 장내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한 다음 일부 상품을 열거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인 정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을 보완
 - 업무 범위 확대 : 기능별로 나누어진 업종에 대한 상호 겸영을 허용함으로써 대형 투자은행의 탄생이 가능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업종간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겸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함.
 -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고 판매권유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종합투자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펀드, 외국환 등과 관련한 각종 제한도 완화하거나 폐지
 -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 금융투자업의 업무 및 취급 상품 범위의 확대에 따라 보호체계 미비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을 최대한 축소하고자 함.
 - 특히, 장외파생상품과 비정형간접투자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 체제 구축

- 투자권유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 도입

□ 자본시장 통합법의 추진은 자본시장의 발달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기대되는 동시에 은행, 보험 등 모든 금융산업을 포괄하는 금융통합법으로 가는 전단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융투자업은 사실상 예금, 대출, 보험 상품을 제외하고 모든 금융 업종을 영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초대형 금융기관의 탄생도 가능한 환경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자본시장 통합법이 만들어질 경우 금융관련법의 종류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기타 등으로 나뉘어져 사실상 크게 3가지로 축약됨에 따라 전체 금융산업에 대한 통합법을 구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중간단계를 완성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금융통합법도 은행, 보험, 금융투자를 3대축으로 하여 각각 고유영역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던 만큼 금융투자 부문의 통합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그림 1> 현행 금융법 체계



주: 1) 비정형 간접투자는 상법상 익명조합, 민법상 조합, 유한회사 등 현행 간접투자관련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vehicle을 이용한 간접투자임.
 2) 점선 부문은 현재 투자자보호 법제가 없는 부분
 자료 : 재경부 『금융투자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방안

3. 자본시장 통합법의 특징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파생상품의 범위 확대 및 판매 권유자 제도 도입으로 보험산업의 영역이 크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금융투자업에 대한 지급결제기능의 도입이 보험산업에도 허용될 경우 종합자산관리기관을 지향하는 보험산업의 비전 달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 통합법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업무 영역과 취급상품의 범위에 한정해서 논의하고자 함.

<증권, 파생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은 파생상품과 신종증권 등에 있어서 보험상품의 영역에 해당되는 기능이 중첩될 가능성이 높음.
 - 자본시장 통합법은 투자상품의 영역에 '타인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뿐만 아니라 '타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외생적 지표에 의해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까지를 포함함에 따라 보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 보험업계에서 꾸준히 부수업무의 대상으로 논의되어왔던 날씨파생상품이나 재해연계증권(CAT bond)이 금융투자업의 취급상품으로 포함될 것임.
 -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경우 사실상 동일한 위험을 근거로 한 파생상품으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업무영역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상품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파생상품은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전통적인 보험상품과 날씨파생상품을 비교할 경우 부보대상 사건의 우연성과 미래의 특정 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내용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는 상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반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와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보험상품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 o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들은 파생상품이라는 금융기법의 발달에 따라 나타난 것이고 기본적으로 외생적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담보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영역의 상품이라 할 수 있음.
- 신용파생상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보험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판매 권유자 제도 도입>

- 금융투자업의 판매권유자 제도 도입은 보험설계사의 수익증권 판매허용, 교차판매 허용 등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판매채널에 큰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o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설계사의 수익증권 판매와 교차판매의 허용은 전속 보험설계사 중심의 국내 보험시장의 판매채널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o 금융투자업에서도 판매권유자 제도가 도입될 경우 단기적으로 설계사들과 수익증권 판매에서 경쟁관계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와 판매조직 사이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o 향후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등 다양한 상품을 포괄적으로 취급하는 백화점식 전문 금융판매사 조직의 탄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지급 결제 기능>

- 금융투자업의 지급결제기능 부여는 금융 산업의 3대축 중 은행과 증권이 종합금융기관을 지향하게 됨을 의미함.
- o 금융투자업의 경우 지급결제기능이 부여되면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함.
- 이체, 출금, 입금, 카드·지로 결제 등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 고객의 편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험산업의 경우 장기자산종합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서비스의 출발점이 되는 지급결제기능의 확보가 필수적임.
- 보험산업만 지급결제기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금융산업이 사실상 은행과 증권
의 2대축으로 개편되어 갈 가능성이 높음.

<간접투자 환경 개선>

- 펀드를 이용한 투자 환경의 개선에 따라 금융투자업 자체의 경영 환경도 나아질 것으로 판단되나 보험산업의 자산운용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간접투자기구 활용도를 크게 개선하고 사모펀드 등 펀드와 관련된 각종 제한과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금융투자업의 자산운용 대상과 방법이 크게 확대될 것임.
- 투자 대상이 어업권, 광업권, 보험금지급청구권 등 무형의 자산을 포함하면서 금융투자업의 영업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
- 보험산업의 입장에서 위탁을 통한 자산운용의 범위와 방법이 확대되고 사모펀드 등 펀드와 관련된 각종 제한과 규제가 제거됨으로써 자산운용 환경이 개선될 것임.

4. 시사점

자본시장 통합법의 추진을 보험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업무영역 확대와 경영 환경 개선의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자본시장 통합법의 추진으로 보험산업에 기회와 위기 요인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금융투자업의 취급 가능 상품이 날씨파생상품 등으로 확대되면서 보험산업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음.
- 판매 권유자 제도의 도입도 사실상 외부 영업 조직을 이용한 마케팅을 독점해왔던 보험산업의 입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금융투자업이 지급결제기능까지 확보할 경우 보험산업은 은행 등 타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반면, 보험산업도 지급결제기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면 종합자산관리기관을 지향하는 비전에 보다 가깝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임.
- 자산운용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보험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처의 다변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보험산업 자체의 자산운용과 관련해서도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자본시장 통합법의 추진에 따라 보험산업은 금융산업의 주요 축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역할 확대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파생되는 미래의 환경 변화에도 대응해나가야 할 것임.
- 우연한 사건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성격을 갖는 날씨파생상품은 특성상 보험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날씨파생상품과 재해연계증권(CAT bond)은 자본시장 통합법의 진행과 함께 보험산업의 부수업무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날씨파생상품은 날씨와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보험회사들은 핵심 역량 강화에 역점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보험산업은 금융투자업의 판매 권유자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보험산업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익증권 판매 허용, 교차판매제도 도입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판매 채널 전략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직판 채널의 발달 등으로 보험회사의 가용 채널은 크게 다변화되어 있는 만큼 상품 및 목표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속에서 판매채널 관련 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들은 지급결제기능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고령화, 종합금융서비스화 등 다양한 추세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반면, 보험회사의 향후 비전에 따라 지급결제 기능의 필요성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게 있어서 위탁 가능한 자산의 범위와 방법이 크

게 확대된 만큼 자산운용의 다변화에 노력하고 사모펀드 등의 참여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중소형사의 경우 사모펀드를 활용한 공동 자산운용을 통해 자산 운용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보험산업 개관

생명보험의 경우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률이 크게 증가하고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증가하는 등 보험회사 전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함.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 감소>

- FY2005 1/4분기~3/4분기 중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영업수지와 투자영업수지 모두가 감소하였고 손해보험회사(보증보험 제외)는 보험영업수지가 크게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보험회사 전반적으로 전년동기간대비 당기순이익이 축소됨.
- 생명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 감소는 보험영업수지가 전년동기간에 비해 3조 9,362 억원이 감소, 투자영업수지가 1조 2,961억원이 감소, 그리고 법인세가 3,524억원 증가한데 기인함.
- FY2005 3/4분기말까지 일반계정의 경우 지급보험금과 환급금이 크게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보험영업수지가 대폭 감소함.
- 국고채(5년만기) 유통수익률이 FY2004 3/4분기말에 3.5%였으나 FY2005 3/4분기 말에 5.3%로 증가하는 채권시장의 하락장세를 겪으면서 보험회사의 자산비중이 높은 매도가능증권의 채권운용수익률이 FY2004 3/4분기말 7.0%에서 FY2005 3/4 분기말 6.3%로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투자영업수지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표 1>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 변화

(단위: 억원)

	생명보험		손해보험	
	FY2004 3/4	FY2005 3/4	FY2004 3/4	FY2005 3/4
보험영업수지	92,791	53,429	-3,917	-6,213
투자영업수지	87,623	74,662	13,456	13,731
기타수지	-17,478	2,448	-1,830	-769
준비금전입액	133,639	111,892	-	-
법인세	646	4,170	2,071	1,794
당기순이익	28,651	14,477	5,638	4,955

주: 손해보험은 보증보험을 제외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 감소는 보험영업수지가 전년동기간에 비해 2,296억원이 감소(58.6%감소)한데 기인하며, 투자영업수지에서는 채권시장의 하락장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간대비 보합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하여 보험영업수지가 감소함.

<종목별 보험금지급률 및 손해율 증가>

□ 생명보험회사의 종목별 보험금지급률을 살펴보면 개인 부문에서 생존과 생사혼합이 크게 증가하였고 단체부문도 크게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보험영업수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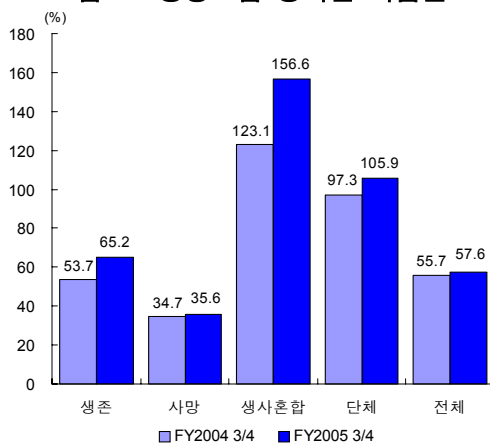
○ 보험금지급률은 생존보험에서 11.5%p 상승, 생사혼합보험에서 무려 33.5%p가 상승하였고, 단체보험에서 8.6%p가 상승함.

- FY2004 3/4분기말 대비 FY'05 3/4분기말 생존보험의 효력상실해약환급금이 19.3%가 증가하여 보험금지급률이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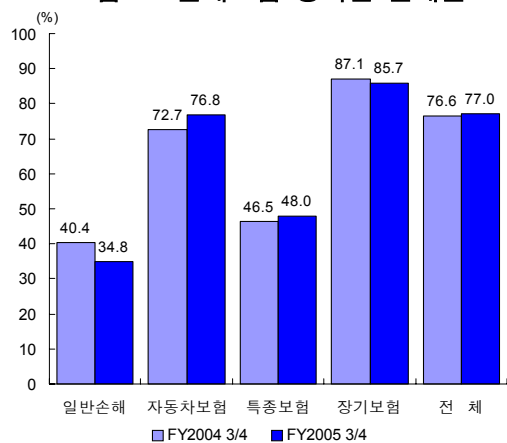
-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차익 비과세기간 확대를 앞두고 저축성보험 수요 급증세가 2000년 12월까지 꾸준히 이어졌으며, FY2005 3/4분기 들어 당시 판매된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률이 크게 상승함.

- 단체보험에서는 FY2004 3/4분기말 대비 FY2005 3/4분기말에 만기보험금이 25.6%가 증가하여 보험금지급률이 상승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률



<그림 2>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회사의 종목별 손해율은 일반손해보험과 장기보험에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에서 크게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보험영업수지가 감소함.
 - FY2005 3/4분기에 손해율은 일반손해보험에서 전년동기간대비 5.6%p가 감소한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4.1%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보험의 FY2004 3/4분기말과 FY05 3/4분기말의 사업비율은 각각 31.8%와 31.4%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손해율이 크게 증가하여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104.5%에서 108.3%로 크게 증가함.
 -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증가로 인해 손해보험의 보험영업수지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의 축소로 연결됨.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에 따른 사고율 증가와 폭설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크게 악화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FY2005에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지급률 상승으로 인한 당기순이익 감소효과는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사업비 전환효과로 인해 이익이 기간마다 분산되고 저축성보험 등의 사업비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당기순이익의 추이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상승은 폭설 등의 피해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음.
 - 그렇지만 손해보험에서 비중이 큰 자동차보험의 수요기반이 크게 증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 제고는 낙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동향분석팀)

보험산업 환경

1. 해외 경제

2005년 4/4분기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2006년 들어서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제는 상승세를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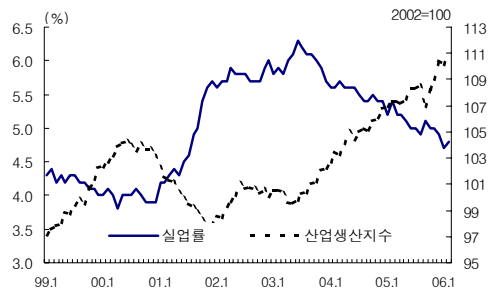
- 2005년 4/4분기에 미국은 일시적 성장세 둔화, 중국은 견조한 성장세 지속, 일본과 유로 지역은 전분기에 이어 회복세를 지속하는 등 세계경제는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임.
- 미국은 2005년 4/4분기에 자동차 판매 감소로 인한 소비 증가세 둔화 등의 요인에 의해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4.1%→1.6%), 2006년 1월 들어 소매판매와 실업률 등의 지표가 양호한 가운데 산업생산도 상승하는 등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냄.
- 중국은 2005년 4/4분기에도 전분기에 이어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이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2006년 1월 들어서 춘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수출 신장세가 크게 확대('05.12월 18.2%→'06.1월 28.1%)되는 등 고성장을 지속함.
- 일본은 2005년 4/4분기에 전분기대비 5.5%(연율) 성장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2006년 1월에는 수출, 소매판매 등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회복세를 지속함.

<표 1> 주요국 GDP성장률 추이

		(단위: %)					
		2004	2005				
			1/4	2/4	3/4	4/4	연간
미 국		4.2	3.8	3.3	4.1	1.6	3.5
일 본		2.3	6.0	5.4	1.4	5.5	2.8
중 국		10.1	9.9	10.1	9.8	9.9	9.9
유 로		2.1	1.2	1.6	2.8	1.2	1.3

주: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그 외는 전기대비 연율
 자료: 재경부, 『최근경제동향』 200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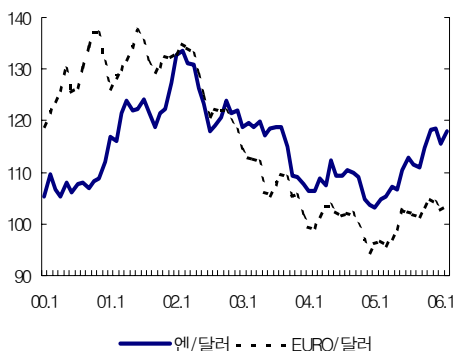
<그림 1> 미국 산업생산과 실업률



자료: FRB St. Lou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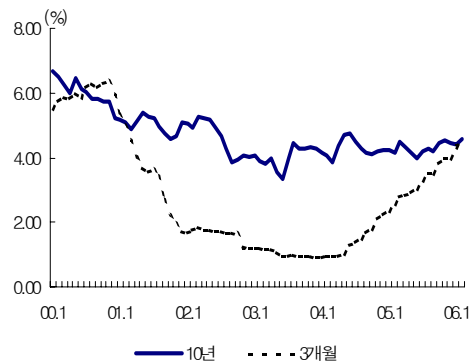
- 유로지역은 2005년 4/4분기에 전분기대비 다소 성장세가 주춤하였으나, 2006년 1월 들어 소매판매, 수출 등이 호조를 나타내었고, 주요 경기심리지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2005년 12월말 하락 이후 2006년 1, 2월 들어 상승 반전하였으며, 미국 달러화는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작년 말 약세에서 금년 들어 강세로 전환하였으나 2월에 엔화에 대해서는 약세를 나타냄.
- 美 연준의 금리인상(2005년 12월 13일)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인상 종료 기대와 인플레이션 둔화 등으로 12월에는 4.40%로 하락하였으나 국채 발행물량 확대 등에 따라 1월중에는 4.53%로 상승 반전하였으며 2월에는 4.55%로 소폭 상승 시현
- 美 달러화는 2005년 12월 이후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 무역적자 확대 등에 따라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약세를 시현하였으나, 금년 들어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2월에는 엔/달러가 117.97, 유로/달러가 0.837로 달러 강세 시현
- 미국의 주식시장은 2005년 4/4분기 중 약보합세를 나타내었으나, 금년 들어 소폭 상승 전환
- 미국 자본시장은 기업들의 금리인상 지속 등에 기인하여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2005년말 10,717.5로 마감하였으나 2006년 들어 기업실적 호조와 유가하락 등에 기인하여 2월말에는 10,993.4까지 상승세를 나타냄.

<그림 2> 국제환율 추이



주: 기간 평균 환율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3> 미국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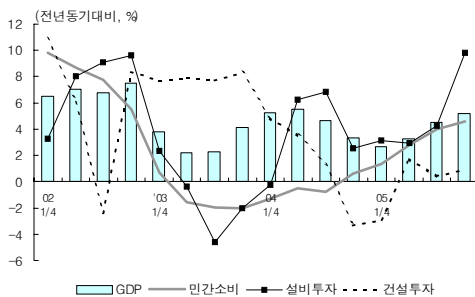
주: 기간 평균 금리임.
자료: FRB St. Louis

2. 국내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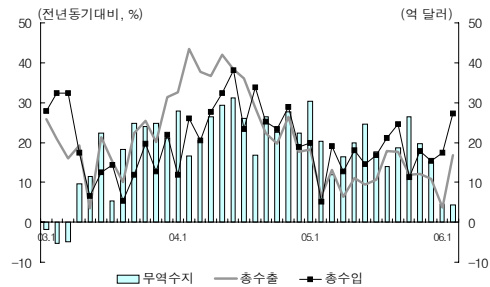
2005년 4/4분기에 국내 경제는 생산 및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주축이 되어 기대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5%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함.

- 2005년 4/4분기 중 GDP는 제조업 생산 및 서비스업의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2%가 증가하였으며, 2005년 연간 실질 GDP는 전년대비 4.0% 증가
- 2005년 4/4분기 중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장비,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 및 자동차 등 운수장비 투자도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9.8% 증가(전분기대비 0.4% 증가)하였고,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투자가 늘어 전년동기대비 0.9% 증가(전분기대비 0.4%)
- 또한 민간소비는 TV, 승용차 등의 내구재에 대한 지출 및 서비스지출도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4.6% 증가(전분기대비 4.0% 증가)
- 2005년 연간으로는 건설투자가 부진한 반면 자동차 및 반도체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민간소비가 증가하여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감소하고 내수의 성장기여율은 크게 상승함.
- 수출은 2005년 10월 사상 최초로 월간 25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월까지 월간 25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며 수입도 12월에 사상 최초로 월간 24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2005년 무역수지는 2004년 대비 62억 달러 감소한 232억 달러 흑자 기록

<그림 4> 부문별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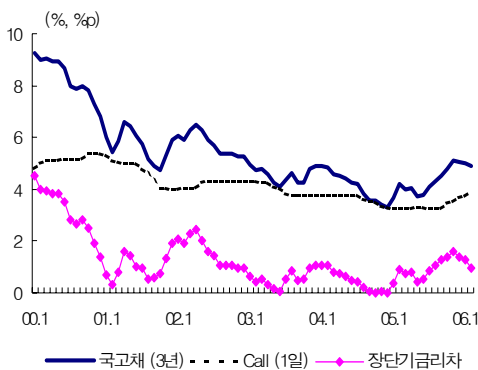


<그림 5> 대외 거래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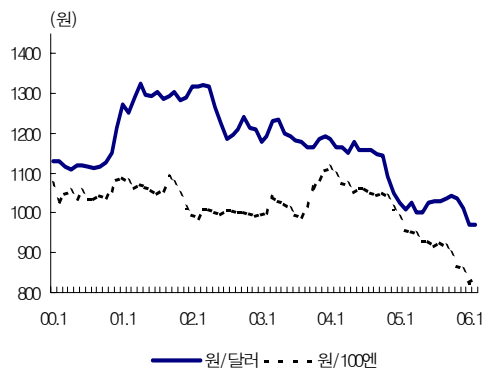
- 2006년 들어 수출은 기계류, 자동차, 반도체 등이 높은 증가를 기록하여 2월에 전년동기대비 17.4% 증가한 239.6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원유수입 급증 등에 기인하여 2월에 전년동기대비 27.3% 증가한 234.2억 달러를 기록
- 2005년 4/4분기에 국고채(5년) 유통수익률은 5%수준을 상회하다가 2006년 들어 다소 하락세를 보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2005년 12월말 달러당 1,011.6원에서 금년 들어 2월 말에는 달러당 970.9원까지 하락
- 금년 들어 경기회복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 완화 등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겹치면서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환율안정을 위한 채권발행 확대 우려감 등으로 인해 국고채수익률은 2005년 12월말 5.36%에서 금년 2월말에는 5.05%로 마감
- 단기금리(CD 91일물 유통수익률)는 정책금리 인상에 따라 2005년 12월말 4.09%까지 상승하였으며 올해 2말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26%로 마감
- 원/달러 환율은 무역흑자의 지속으로 2005년 10월말 달러당 1,040.2원에서 12월말 1,011.6원까지 하락하였고 2006년 들어 수출내고자금의 출회와 역외거래자의 달러 매도세 등으로 인해 금년 2월말에는 달러당 970.9원까지 급락
- 달러대비 원화의 절상률이 엔화의 절상률보다 커서 원/엔화(100엔) 환율은 2005년 12월말 856.13원에서 금년 2월말에는 833.80원으로 마감

<그림 6> 국내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7> 원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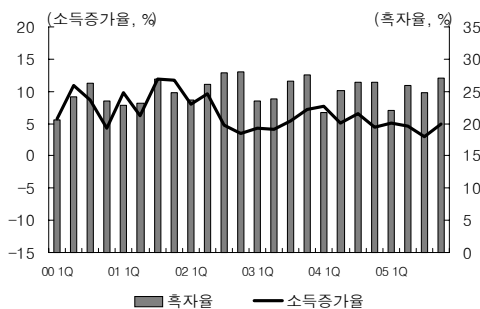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3. 가계경제 및 시중 자금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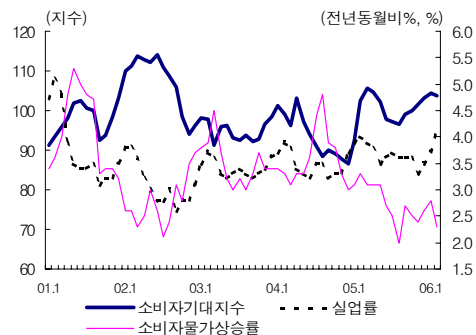
2005년 4/4분기와 2006년 들어 소비자기대지수는 100이상 수준을 나타내어 향후 경기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자본시장의 호황에 따라 주식관련 금융상품으로 자금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권에서도 변액 관련 상품으로 자금이 꾸준히 증가함.

-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2005년 10월 100.0에서 12월에는 103.0으로 상승하였고 금년 1월에는 104.5, 2월에는 103.8로 전월보다 다소 낮아짐.
- 2006년 1월과 2월 모두 월평균소득이 100만원미만대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소비자기대지수가 기준치 100을 상회하여 향후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는 2005년 12월 205천명, 2006년 1월 393천명, 2월 327천명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2월 실업자는 95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천명(-3.6%)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4.1%로 전년동월대비 0.2%p하락
- 2005년 4/4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941.2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1% 증가(실질소득으로는 1.5% 증가)하였으며, 경상소득은 2,790.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하였고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함.

<그림 8> 가계 소득, 흑자율 추이



<그림 9> 소비심리, 실업률, 물가



보험산업 환경

- 2005년 4/4분기(FY2005 3/4분기)중 자금흐름은 투신권의 경우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었으며 은행은 MMDA가 늘어난데 힘입어 소폭 증가하였고 보험권에서는 변액 및 장기상품을 중심으로 자금유입이 지속됨.
 - 은행권의 경우 MMDA가 일부 은행의 우대금리 적용 등에 따른 기금 등의 자금유입으로 대폭 증가한데 힘입어 4/4분기 중 소폭 증가
 - 투신권의 경우 MMF는 법인자금 익일환매제 실시 등의 영향으로 계속 감소하였고,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로의 자금유입이 지속되고 채권형펀드의 감소세는 다소 둔화됨.
 - 생명보험은 변액연금 및 퇴직보험 대한 인기가 지속되고 손해보험은 장기보험의 순수신이 50% 가량을 차지함.
- 보험권에서는 생명보험의 경우 자본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변액상품을 중심으로 75,781억원의 순수신이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도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17,154억원의 순수신이 증가함.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CY2004				CY2005			
	1/4	2/4	3/4	4/4	1/4	2/4	3/4	4/4
보 험	48,649	64,808	71,449	94,002	55,643	71,225	77,359	92,935
생명보험	37,604	48,549	54,862	75,500	42,277	53,602	60,022	75,781
손해보험	11,045	16,259	16,587	18,502	13,366	17,623	17,337	17,154
은 행	-67,109	37,239	-1,871	-28,410	-20,297	176,673	96,532	49,098
일반계정	-11,707	40,699	19,734	-13,394	-30,494	196,056	84,452	41,787
신탁계정	-55,402	-3,460	-21,605	-15,016	10,197	-19,383	12,280	7,311
증 권	-5,145	5,049	-1,427	-11,172	16,898	11,948	17,618	19,175
투 신	170,435	-14,380	136,801	148,323	52,889	46,962	-37,592	74,571
종 금	-20,816	7,090	940	-18,256	19,416	2,048	-10,616	40,443

주: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최영목 부연구위원)

보험지표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5 3/4분기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경우 변액보험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고 손해보험도 장기손해보험과 퇴직보험 상품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12.4%의 견조한 성장세 시현

- FY2005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양호한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12.4% 성장함.
- 생명보험은 연말 변액보험의 판매가 가속화되면서 성장을 주도하고 퇴직보험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2.8%의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함.
-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성장 정세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과 퇴직보험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전년동기대비 11.6%의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함.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121,185	126,698	155,732	133,891	537,506	136,933	141,537	175,623
	6.3	10.4	0.5	11.4	6.7	13.0	11.7	12.8
손해보험	55,748	57,031	62,222	57,171	232,173	61,236	62,063	69,438
	9.0	8.1	9.3	8.1	8.6	9.8	8.8	11.6
합 계	176,933	183,729	217,954	191,062	769,679	198,169	203,600	245,061
	7.1	9.7	2.9	10.4	7.2	12.0	10.8	12.4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5 3/4분기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이 4.8%, 손해보험이 4.9% 성장하여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4.8% 성장함.

- FY2005 3/4분기말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성장세가 상승하면서 전분기대비 4.8% 증가한 283조 6,657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234조 7,66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변액보험과 퇴직보험이 포함된 특별계정 수입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4.8% 성장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48조 8,995억원으로 장기손해보험 및 퇴직보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준비금이 증가하고 투자수지흑자가 확대되면서 전분기대비 4.9% 증가함.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1,915,209	1,993,838	2,099,079	2,116,098	2,116,098	2,170,712	2,240,311	2,347,662
	2.2	4.1	5.3	0.8	12.9	2.6	3.2	4.8
손해보험	395,180	409,196	426,766	434,720	434,720	450,522	466,126	488,995
	1.8	3.5	4.3	1.9	15.0	3.6	3.5	4.9
합계	2,310,389	2,403,034	2,525,845	2,550,818	2,550,818	2,621,234	2,706,437	2,836,657
	2.1	4.0	5.1	1.0	12.8	2.8	3.3	4.8

주: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김진익 선임연구원)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5 3/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2.8% 성장한 17조 5,623억원으로 전분기에 이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감.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이 295.8% 증가하고 비중도 14.1%를 차지하면서 전체 개인보험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 14.2% 성장함.
 - 단체보험의 경우 퇴직보험의 판매가 중단되고 또한 12월부터 판매된 퇴직연금의 판매가 저조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7.2%의 성장에 그침.
- FY2005 3/4분기말 총자산 규모는 234조 7,662억원으로 전분기대비 4.8% 증가함.
 - 총자산은 특별계정의 수입보험료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특성상 보험금지급률은 낮아 특별계정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총 자 산	1,915,209	1,993,838	2,099,079	2,116,098	2,116,098	2,170,712	2,240,311	2,347,662
	2.2	4.1	5.3	0.8	12.9	2.6	3.2	4.8
수입보험료	121,185	126,698	155,732	133,891	537,506	136,933	141,537	175,623
	6.3	10.4	0.5	11.4	6.7	13.0	11.7	12.8

주: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기준이며,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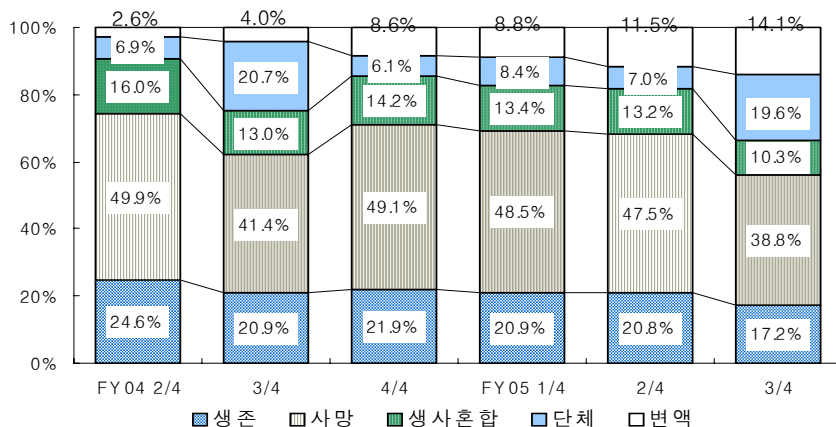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5 3/4분기 종목별 비중은 일반계정 사망보험 38.8%, 생존보험 17.2%, 생사혼합보험 10.3% 및 단체보험 19.6% 등으로 지난 동기보다 모두 축소된 반면 변액보험이 14.1%로 전년동기대비 10.1%p 확대됨.
- FY2005 2/4분기에 비중이 10%대를 넘어선 변액보험은 주식시장호황이 이어지고 연말유동자금이 풀리면서 3/4분기에는 14.1% 규모로 성장함.
 - 일반계정 사망보험 비중은 FY2004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금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6%p 감소한 38.8%를 기록함.
 - 생존보험도 FY2004 3/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금분기는 전년동기보다 3.7%p가 감소하면서 17.2%를 기록함.
- 일반계정 무배당보험 구성비는 전년동기대비 2.0%p 증가한 86.4%였고 금리연동형보험은 0.4%p 증가한 45.8%였음.
 - 종신보험은 비중이 높으나 1.1%p 감소한 24.2%이었고 질병보험은 22.8%로 2.3%p 증가한 반면 상해보험은 0.1%p 증가한 5.1%에 그치고 변액보험비중은 3.4%였음.
- 한편 특별계정 변액보험 중 변액종신이 3.4%, 변액유니버설보험 41.0%, 변액연금 51.5%, 변액기타 4.1%로 변액연금보험의 비중이 17.6%p 증가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5 3/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한 14조 1,137억원이었으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7.2% 증가한 3조 4,486억원이었음.
- 일반계정 생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한 3조 125억원으로 전분기의 감소세를 이어갔음.
 - 이는 연말 주식시장의 호황과 함께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자금이 변액연금으로 몰리면서 연금보험을 위시한 전통적인 생존보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임.
- 일반계정 사망보험은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한 6조 8,182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었으나 성장세는 3분기 연속 하락함.
 - 저성장세를 보이던 종신보험이 금번분기 -5.4%로 감소세로 반전되어 건강관련 보험의 성장(질병보험 10.1% 성장)을 상쇄했기 때문임.
- 생사혼합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9% 감소한 1조 8,07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특별계정 변액보험을 보증별로 포함시킬 경우 생존보험은 23.7%, 생사혼합보험 27.5%로 성장률이 증가하고 사망보험은 4.9%로 감소함.
- 단체보험의 경우 퇴직보험이 12월부터 판매가 중단되면서 9.3%로 성장률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단체보험은 전년동기대비 7.2%로 성장률이 하락함
 - 이는 12월 판매가 시작된 퇴직연금의 판매저조가 주원인으로 12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수십억원에 그치고 퇴직보험도 판매중단에 따른 12월 신계약부재로 인해 9.3% 성장하는데 그침.
 - 또한 일반단체보험이 8.1% 감소하면서 단체보험의 성장률이 낮아짐.
- 상품별로는 장기건강보험이 전년동기대비 15.7%, 질병보험이 10.1%로 성장률이 높았음.
 - 반면 종신보험이 5.4% 감소하고 상해보험 1.9%, 어린이보험 3.9%로 성장이 저조했고 일반계정 변액보험이 전분기대비 14.3% 성장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료	28,266	31,173	32,542	29,385	121,366	28,600	29,441	30,125
	성장률	18.3	17.4	-12.1	4.2	4.9	1.2	-5.6	-7.4
	구성비	23.3	24.6	20.9	21.9	22.6	20.9	20.8	17.2
사망	보험료	61,844	63,199	64,497	65,798	255,338	66,402	67,289	68,182
	성장률	11.2	12.9	11.8	9.6	11.3	7.4	6.5	5.7
	구성비	51.0	49.9	41.4	49.1	47.5	48.5	47.5	38.8
생사 혼합	보험료	20,028	20,264	20,279	19,076	79,646	18,312	18,700	18,070
	성장률	-14.6	-11.8	-22.4	-13.0	-15.7	-8.6	-7.7	-10.9
	구성비	16.5	16.0	13.0	14.2	14.8	13.4	13.2	10.3
변액 보험	보험료	2,785	3,293	6,256	11,456	23,789	12,093	16,215	24,761
	성장률	202.8	189.9	94.9	386.3	212.2	334.3	392.4	295.8
	구성비	2.3	2.6	4.0	8.6	4.4	8.8	11.5	14.1
개인계	보험료	112,923	117,929	123,574	125,714	480,140	125,408	131,646	141,137
	성장률	8.7	10.6	-0.4	11.7	7.4	11.1	11.6	14.2
	구성비	93.2	93.1	79.4	93.9	89.3	91.6	93.0	80.4
단체	보험료	8,262	8,769	32,158	8,177	57,366	11,526	9,891	34,486
	성장률	-18.3	8.3	4.3	5.8	1.1	39.5	12.8	7.2
	구성비	6.8	6.9	20.7	6.1	10.7	8.4	7.0	19.6
합계	보험료	121,185	126,698	155,732	133,891	537,506	136,933	141,537	175,623
	성장률	6.3	10.4	0.5	11.3	6.7	13.0	11.7	12.8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5 3/4분기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상위사의 경우 증가했으며 국내중소형사도 소폭 증가한 반면 외국사는 지난해 수준으로 감소함.

- 상위 3사의 경우 연말 퇴직보험 수요가 몰리면서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점유율이 소폭 증가했으나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1.7%p가 축소하였음.
- 국내 중소형사는 수입보험료가 13.7% 증가하면서 점유율도 16.2%로 증가하였으나, 외국사는 수입보험료가 23.7% 증가하였으나 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하락한 16.8%를 기록함.
- 국내 중소형사들은 다른 보험회사들보다도 일반계정이 견조한 성장을 하고 변액보험도 대폭 성장(4100.8%) 하였으나 퇴직보험의 성장(2.2%)이 저조한 양상을 보이면서 전년동기대비 소폭 확대에 그침(0.1%p).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상위 3개사	70.1	67.9	68.6	67.7	68.5	67.1	65.3	66.9
상위 9개사	88.4	86.3	86.5	86.0	86.8	85.3	84.6	84.8
외 국 사	15.5	17.4	15.3	17.7	16.5	18.0	18.6	16.8
국내중소형사	14.4	14.7	16.1	14.6	15.0	15.0	16.1	16.2
허핀달지수	0.1935	0.1807	0.1847	0.1823	0.1848	0.1833	0.1731	0.1778

주: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5년 9월말 알리안츠 등 10개사이며, 하나,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9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05 3/4분기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수지가 크게 감소하고 투자영업수지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거의 50%가 축소된 1조 4,477억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수지는 전년동기대비 보험영업비용이 15.1%나 증가한 반면 보험영업수익은 0.6%의 소폭 증가, 보험영업수지차가 42.4%나 감소하여 총영업수지가 악화됨.

- 보험영업비용 증가는 생사혼합보험의 만기보험금 증가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전년 동기대비 40.6%나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투자영업수지도 금리상승에 따른 투자영업수익감소(9.7%)와 비운영자산 자산운용비용증가에 따라 투자영업비용이 증가(22.0%)하면서 14.8% 감소함.

○ 준비금전입액이 일반계정 보험의 실적부진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보험영업수지차도 감소하면서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9.5%나 감소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4			FY2005		
		2/4	3/4	4/4	1/4	2/4	3/4
총 수 익	보험영업	242,546	368,818	492,808	121,728	245,944	371,024
	투자영업	63,184	101,735	129,822	29,363	60,610	91,883
	기타	1,451	2,015	5,548	14,412	6,575	6,576
	소계	307,181	472,568	628,178	165,502	313,129	469,484
총 비 용	보험영업	179,129	276,027	391,414	96,807	199,745	317,595
	투자영업	9,617	14,112	22,410	5,413	11,621	17,221
	기타비용	7,076	19,493	20,123	12,680	3,814	4,129
	소계	195,822	309,632	433,946	114,900	215,181	338,945
수 지 차	보험영업	63,417	92,791	101,395	24,921	46,199	53,429
	투자영업	53,567	87,623	107,412	23,950	48,989	74,662
	기타	-5,625	-17,478	-14,575	1,732	2,761	2,448
	소계	111,360	162,936	194,232	50,603	97,948	130,539
준비금전입		90,655	133,639	167,578	42,154	83,547	111,892
법인세		8	646	5,602	1,644	3,014	4,170
당기순이익		20,696	28,651	21,051	6,805	11,388	14,477

주: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5 3/4분기 전체 보험금지급률은 수입보험료가 증가했으나 지급보험금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5.4%p 상승하였으며,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83.6%p나 보험금지급률이 상승함으로써 전체 일반개정 개인보험 보험금지급률을 상승시켰으며, 이는 5년전 저축성상품 비과세 기간연장에 따라 판매가 되었던 상품들의 만기도래에 따른 만기보험금지급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3%p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감소와 함께 사업비가 증가함으로써 사업비율 증가가 컸음.

<표 7>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금지급률	59.9	56.7	51.5	68.4	58.8	58.6	57.6	56.9
생 존	52.8	48.9	54.0	66.4	55.7	55.6	52.9	70.0
사 망	32.6	33.8	35.9	36.7	34.8	33.5	35.4	36.4
생사혼합	123.9	112.7	115.6	125.0	119.3	100.0	98.1	199.2
개 인 계	54.5	52.0	55.3	60.4	55.6	52.3	52.8	59.1
사 업 비 율	18.0	18.6	16.0	24.6	19.2	19.0	18.6	16.3
신 계 약 률	6.2	12.7	19.2	27.3	27.3	5.5	12.4	19.1
해 약 률	4.3	8.0	11.5	14.2	14.2	3.2	6.1	8.8

주: 1)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해약률은 (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임.

2) 신계약률과 해약률은 누계치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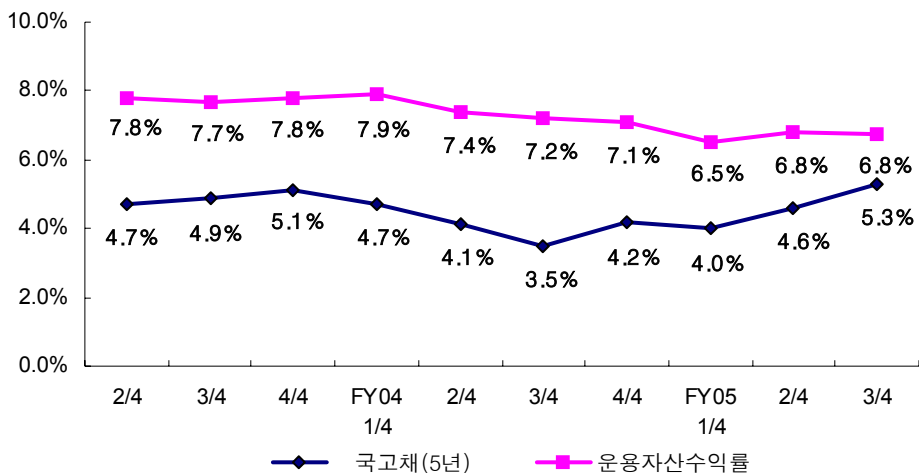
<자산 운용>

□ FY2005 3/4분기 생명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지난 분기말과 같은 수준인 6.8%였으며, 시중금리상승에 따라 매도가능채권의 운용수익률이 하락한 반면 주식 시장호황에 따라 주식수익률이 크게 상승했음.

○ 전분기대비 전반적인 자산구성비의 특별한 변화는 없었으며 전체 채권비중이 1.1%p 감소하고 주식은 0.3%p 증가하였음.

-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구성비가 0.2%p 감소하면서 주식수익률은 110.4%로 연말 주가상승에 따른 이익실현이 있었음.
-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구성비가 전분기에 비해 0.4%p 소폭 증가하고 평균수익률도 특히 채권수익률이 6.3%로 하락함에 따라 0.2%p 감소함.
- 한편 만기보유채권 등은 전분기대비 비중이 0.2%p 소폭 하락했으나 만기보유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0.4%p 상승함.

<그림 2>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o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비중은 지난분기 수준을 유지한 반면 부동산만이 0.1%p정도 소폭 하락했음.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4				FY2005					
	3/4		4/4		1/4		2/4		3/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2.0	3.0	1.6	3.4	1.9	3.6	2.2	3.5	2.2	3.8
유 가 증 권	57.2	6.3	57.7	6.2	58.5	5.8	59.0	6.1	59.0	6.0
○ 단기매매증권	3.5	8.0	3.1	7.6	3.0	6.8	3.2	9.5	2.9	10.9
- 주 식	0.2	16.2	0.2	25.3	0.2	27.1	0.3	63.9	0.1	110.4
- 채권 등	1.6	11.2	1.6	8.6	1.9	6.1	1.9	5.2	1.7	6.2
- 수익증권	1.7	3.6	1.3	4.0	0.9	4.1	1.0	6.5	1.0	7.3
○ 매도가능증권	45.5	6.5	46.6	6.4	47.4	5.7	47.5	5.9	47.9	5.7
- 주 식	3.6	2.3	4.0	3.0	3.9	2.0	4.6	3.3	5.1	2.7
- 채권 등	39.6	7.0	40.3	6.8	40.8	6.2	40.0	6.5	39.3	6.3
- 수익증권	2.3	5.7	2.4	5.7	2.8	3.0	2.9	2.4	3.4	1.9
○ 만기보유증권	7.4	5.0	7.1	5.2	7.3	5.8	7.6	5.8	7.4	6.2
- 채권 등	7.4	5.0	7.1	5.2	7.3	5.8	7.6	5.8	7.4	6.2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	-	0.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8	1.8	0.8	1.2	0.8	4.8	0.8	5.5	0.8	5.9
대 출 채 권	23.7	10.0	23.5	10.1	22.7	9.3	22.6	9.3	22.6	9.4
부 동 산	4.6	5.0	4.6	4.7	4.5	3.7	4.5	3.8	4.4	4.3
운 용 자 산 계	87.4	7.2	87.3	7.1	87.7	6.5	88.4	6.8	88.2	6.8
비 운 용 자 산	12.6	10.7	12.7	8.8	12.3	3.0	11.6	2.4	11.8	2.8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91.4)	7.6	100.0 (91.2)	7.3	100.0 (90.9)	6.1	100.0 (90.4)	6.2	100.0 (88.7)	6.3
특 별 계 정 자 산	9.4	5.1	9.7	5.1	10.0	4.5	10.6	5.5	12.8	6.6
총 자 산	100.0	7.4	100.0	7.1	100.0	6.0	100.0	6.2	100.0	6.3
총 자 산 규 모	2,099,079		2,116,098		2,170,712		2,240,311		2,347,662	

주: 1) 수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5 3/4분기는 전년동기대비 임직원과 방카슈랑스에 의한 초회보험료 판매비중

은 감소한 반면 보험설계사에 의한 판매비중은 증가함.

- 임직원의 경우 비중확대추세이나 퇴직보험의 판매중단과 퇴직연금의 실적부진으로 전년동기보다는 1.4%p 감소함.
- 설계사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15.2%p 증가하면서 44.2%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설계사에 의한 판매비중이 높은 변액보험 판매가 확대된데 기인함.
- 방카슈랑스 비중은 지난 분기에 이어 14.3%p 감소한 21.7%로 일반 저축성보험의 성장부진과 변액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비중이 축소된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대리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최근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변액보험에서의 판매비중이 6.75%에 그치는 등 지속적으로 비중이 축소되고 있음.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임 직 원	8.1	13.6	29.2	8.5	16.5	23.5	21.5	27.8
설 계 사	47.0	33.5	28.3	49.6	38.2	37.7	39.4	44.2
대 리 점	8.3	5.9	6.3	8.9	7.2	6.6	6.0	6.3
중 개 사	0.0	0.1	0.0	0.0	0.0	0.0	0.0	0.0
T/M	0.3	0.2	0.2	0.3	0.3	-	-	-
C/M	0.0	0.0	0.0	0.0	0.0	-	-	-
방카슈랑스	36.3	46.7	36.0	32.6	37.8	32.2	33.2	21.7
기 타	0.0	0.0	0.0	0.0	0.0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1,868	16,443	21,974	16,569	66,853	15,713	19,375	28,854

주: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3) FY2005 1/4분기부터 업무보고서 양식변경에 따라 T/M 및 C/M 채널이 다른 채널에 포함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FY2005 3/4분기말 생명보험산업의 보험설계사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대리점수가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임직원수는 소폭 증가에 그침.
- 생명보험산업은 전반적으로 전분기대비 임직원수가 소폭 증가(0.5%)했으며 대리점의 경우는 지난분기에 이어 외국사가 대리점수를 크게 증가(67.3%)시킴.
- 설계사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전분기대비 4.0%가 감소했으나 일부 외국사의 경우 큰 폭으로 설계사를 증원함.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 명, 개)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1/4	2/4	3/4
임 직 원	26,201	26,237	26,015	25,412	25,276	25,688	25,807
설 계 사	145,496	144,714	139,945	136,947	134,172	129,647	124,494
대 리 점	7,268	7,003	6,718	6,672	6,572	7,238	9,391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김진익 선임연구원)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05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과 퇴직보험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한 6조 9,438억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6% 성장한 2조 2,342억원을 기록하여 지속적인 저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장기손해보험은 상해 부문과 저축성 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6.3%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퇴직보험의 경우에도 계절적 요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1.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FY2005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4.9% 성장한 48조 8,995억원을 기록하였음.
 - 이는 장기손해보험과 퇴직보험의 성장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와 투자수지 흑자 확대에 기인한 것임.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2/4	3/4	4/4	연간	1/4	2/4	3/4
원수보험료	57,031	62,222	57,171	232,173	61,236	62,063	69,438
	8.1	9.3	8.1	8.6	9.8	8.8	11.6
총자산	409,196	426,766	434,720	434,720	450,522	466,126	488,995
	3.5	4.3	1.9	15.0	3.6	3.5	4.9

주: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율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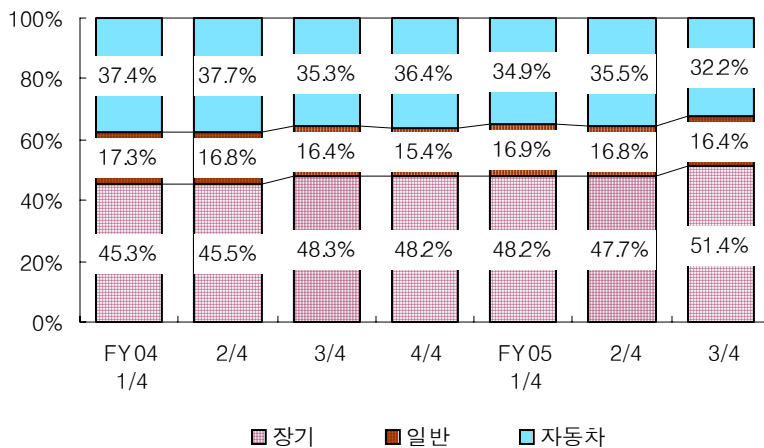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5 3/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이 51.4%, 자동차보험 32.2%, 일반손해보험 16.4%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장기손해보험의 점유율은 최근 수요증가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3.1%p 증가하여 최초로 50%대 점유율을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3.1%p 감소하였음.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주: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 FY2005 3/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조 2,34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 성장하였음.

- 자동차보험은 2004년 11월 기본보험료 인상, 2005년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및 대물보험 가입 의무화, 최근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경쟁 지속으로 인하여 저성장세를 나타냄.
-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2005년 12월 현재 3.1%로 2005년 이후 2%대 증가율에

서 다소 증가한 수준을 보임.

- 장기손해보험의 건강관련 보험 및 저축성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전 종목에서의 꾸준한 성장으로 전년동기대비 16.5% 성장한 2조 7,435억원을 나타냈으며, 전체 손해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음.
 - FY2005 3/4분기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저축성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판매에 힘입어 23.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상해 15.3%, 질병 2.5%, 재물 3.2%의 성장률을 기록함.
 - 전체 손해보험에서의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및 퇴직보험 제외) 점유율은 44.2%로 전년동기대비 2.9%p 증가함.
- 보증보험은 2005년 4월 도입된 모기지신용보험의 판매 본격화, 상품권보증보험 등의 보험료 수입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5.8% 크게 증가한 2,791억원을 나타냄.
- FY2005 3/4분기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한 1,280억원을 기록하였음.
 - 선박보험 원수보험료는 선박의 대형화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7% 성장했으나,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은 요율인하, 해외로의 계약 이탈 등의 요인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12.9%, -3.7%, -8.9%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었음.
- 화재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0.7% 성장한 913억원의 원수보험료를 나타내었음.
 - 화재보험 수요의 종합보험 이전에도 불구하고 2005년 5월 참조위험률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임.
- FY2005 3/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0.1% 성장한 6,263억원을 나타내면서 성장세가 소폭 하락하였음.
 - 종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0.2% 성장하였으며, 기술보험은 19.3%, 상해보험 68.3%의 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책임보험은 -10.3%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기술보험은 대형물건의 계약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반면, 책임보험은 근재보험 등의 요율인하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2/4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료	664	825	685	2,937	794	751	913
	성장률	-12.8	-6.4	-1.0	-7.1	4.1	13.2	10.7
	구성비	1.2	1.3	21.2	1.3	1.3	1.2	1.3
해 상	보험료	1,410	1,263	1,135	5,071	1,399	1,412	1,280
	성장률	1.8	9.7	-13.3	-3.2	10.7	0.2	1.3
	구성비	2.5	2.0	2.0	2.2	2.3	2.3	1.8
자동차	보험료	21,528	21,991	20,838	85,208	21,386	22,062	22,342
	성장률	4.2	8.3	5.8	7.0	2.6	2.5	1.6
	구성비	37.7	35.3	36.4	36.7	34.9	35.5	32.2
보 증	보험료	2,179	2,218	2,268	9,018	2,255	2,391	2,791
	성장률	-3.6	-1.8	-8.3	-4.3	-4.2	9.7	25.8
	구성비	3.8	3.6	4.0	3.9	3.7	3.9	4.0
특 종	보험료	5,088	5,691	4,507	20,369	5,745	5,744	6,263
	성장률	14.2	10.7	14.6	12.7	13.0	12.9	10.1
	구성비	8.9	9.1	7.9	8.8	9.4	9.3	9.0
해외 원보험	보험료	214	188	186	796	129	143	164
	성장률	38.4	15.3	7.0	26.7	-37.8	-33.0	-13.0
	구성비	0.4	0.3	0.3	0.3	0.2	0.2	0.2
장 기	보험료	23,553	24,710	25,295	96,353	26,459	27,435	28,736
	성장률	12.2	13.3	14.3	12.3	16.1	16.5	16.3
	구성비	41.3	39.7	44.2	41.5	43.2	44.2	41.4
개 인 연 금	보험료	1,680	1,695	1,679	6,799	1,684	1,715	1,788
	성장률	-1.5	-1.3	-3.9	-1.1	-3.5	2.1	5.5
	구성비	2.9	2.7	2.9	2.9	2.8	2.8	2.6
퇴 직 보 험	보험료	715	3,642	579	5,622	1,383	410	5,162
	성장률	84.3	4.4	-22.9	13.6	101.8	-42.7	41.7
	구성비	1.3	5.9	1.0	2.4	2.3	0.7	7.4
계	보험료	57,031	62,222	57,172	232,173	61,236	62,063	69,438
	성장률	8.1	9.3	8.1	8.6	9.8	8.8	11.6

주: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5 3/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대형사의 점유율은 FY2005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전업사의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0.2%p 확대되었음.
-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3%p 증가한 71.4%를 나타내었고, 온라인 단종보험사는 전년동기 시장점유율 1.9%에서 2.3%로 증가한 반면, 일반 중소형사의 경우 21.9%에서 21.0%로 0.9%p 감소하였음.
 -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외국사는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온라인 단종보험사, 외국사 등의 점유율이 다소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기보다 낮은 0.1567을 나타냄.

<표 13>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2/4	3/4	4/4	연간	1/4	2/4	3/4
점유비	상위4개사	71.1	71.1	71.1	71.1	71.8	71.6	71.4
	일반사 계	94.8	94.9	94.8	94.8	95.0	94.9	94.7
	전 업 사	4.1	4.0	4.0	4.0	3.8	3.8	4.0
	외 국 사	1.1	1.2	1.2	1.2	1.2	1.3	1.3
허 핀 달 지 수		0.1595	0.1588	0.1583	0.1583	0.1583	0.1581	0.1567

주: 1) 일반사 계에는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6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누적기준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의 총비용>

- FY2005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 및 기타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반면 투자영업이익의 흑자폭이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10,223억원을 나타내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지는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에서의 손해를 급증으로 FY2005 이후 흑자에서 1,662억원 적자로 전환되었음.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한 15,361억원을 나타냄.
- 특히,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보험영업이익은 6,213억원 적자를,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955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표 14> 손해보험회사 총수의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4			FY2005		
		2/4	3/4	4/4	1/4	2/4	3/4
총 수 익	보험영업	101,551	154,488	208,597	55,353	112,337	171,114
	투자영업	12,308	19,292	25,320	5,444	12,166	19,477
	기 타	2,273	6,547	7,632	2,009	3,209	7,984
	계	116,132	180,328	241,549	62,805	127,712	198,574
총 비 용	보험영업	101,688	155,279	212,285	54,480	111,893	172,776
	투자영업	3,453	4,654	5,841	1,385	2,720	4,115
	기 타	2,614	8,324	9,706	2,376	3,412	8,733
	계	107,755	168,257	227,833	58,241	118,024	185,624
수 지 차	보험영업	-137	-791	-3,689	872	444	-1,662
	투자영업	8,855	14,638	19,479	4,059	9,446	15,361
	기 타	-340	-1,777	-2,074	-367	-202	-750
	계	8,377	12,070	13,717	4,564	9,687	12,950
법 인 세		1,426	2,071	2,323	801	1,755	2,727
당기순이익		6,952	10,000	11,394	3,763	7,932	10,223

주: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5 3/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2%p 증가한 99.8%를 기록함.

○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하였으나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하여 합산비율은 0.2%p 증가하였음.

□ FY2005 3/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손해율은 전년동기대비 0.4%p 증가한 77.0%임.

○ 특히,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교통법규위반자사면 등에 따른 사고율 증가, 폭설 등 기상요인으로 전년동기대비 4.1%p 상승하여 보험영업수지 악화원인으로 작용하였음.

<표 15>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2/4	3/4	4/4	1/4	2/4	3/4
손해율	화재보험	58.8	54.8	56.4	38.8	42.8	41.2
	해상보험	51.3	49.3	49.5	42.8	50.3	49.8
	자동차보험	72.3	72.7	72.7	71.5	73.0	76.8
	보증보험	27.6	21.9	25.3	27.9	10.7	-1.0
	특종보험	47.4	46.5	52.0	40.3	47.0	48.0
	해외원보험	44.3	49.4	41.0	29.1	43.3	55.6
	장기보험	86.6	87.1	87.9	85.6	85.6	85.7
	개인연금	118.4	118.1	123.8	117.6	118.7	119.1
전 체		76.6	76.6	77.7	75.3	75.9	77.0
사업비율		22.7	23.0	23.1	22.1	22.6	22.9
합산비율		99.2	99.6	100.8	97.4	98.5	99.8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5 3/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6%p 감소한 6.9%를 나타내었으며 FY2005 1/4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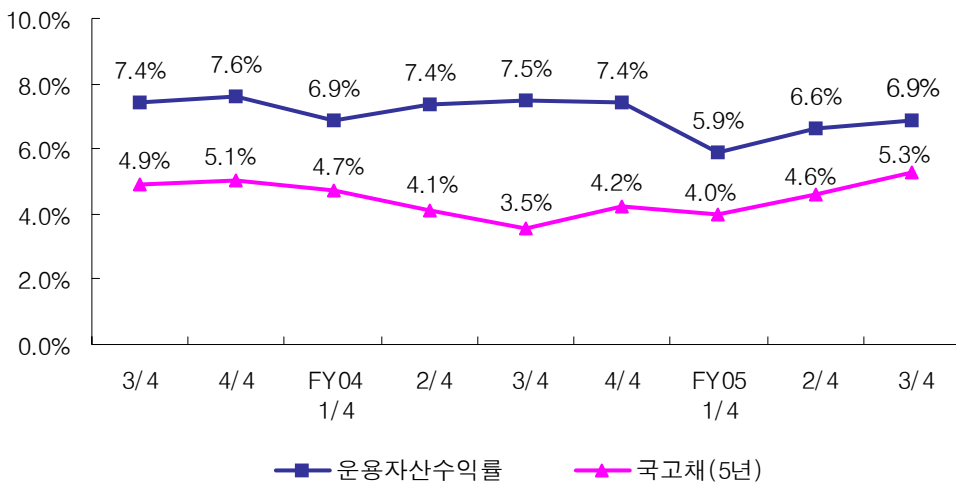
○ 단기매매증권 처분 및 평가이익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파생상품 평가 및

거래이익이 전년동기대비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수익률이 다소 감소하였음.

- 단기매매증권 처분 및 평가이익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9.9% 증가한 2,453억원을 나타냄.

o 단기매매증권의 수익률은 전년동기대비 1.8%p 증가한 10.9%를 나타내었고, 대출채권의 수익률은 0.3%p 감소한 8.1%를 기록함.

<그림 4> 운용자산수익률 추이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2)/(기초자산+기말자산-투자영업수익)
×(연기준 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장기손해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해 채권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o 일반계정에서 매도가능증권의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8%p 증가한 34.7%를 나타내었고, 주식의 비중은 주식시장 호조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0%p 확대된 7.5%를 나타내고 있음.

□ 대출채권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4%p 감소한 17.6%, 부동산은 0.6%p 감소한 7.5%를 나타냄.

□ 손해보험회사들의 운용자산은 총자산 대비 85.2%를 차지하고 있어 전분기대비 0.9%p 감소하였음.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3/4		4/4		1/4		2/4		3/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4.9	3.7	4.4	4.0	4.0	5.9	4.3	3.7	4.3	3.6
유 가 증 권	55.1	8.3	55.3	8.1	55.9	5.9	56.5	6.8	55.9	7.2
○단기매매증권	13.8	9.1	12.4	8.9	12.2	6.9	9.5	9.7	8.1	10.9
- 주 식	0.6	28.2	0.5	31.5	0.6	44.7	0.7	82.2	0.6	103.8
- 채 권 등	7.4	10.6	7.2	9.7	11.6	5.7	5.7	7.2	5.1	8.0
- 수익증권	5.8	4.7	4.7	4.7	0.1	4.3	3.2	4.5	2.4	4.5
○매도가능증권	38.0	7.7	39.5	7.5	40.0	5.5	43.2	6.0	43.7	6.4
- 주 식	5.5	8.5	5.8	9.9	5.7	5.2	6.9	8.0	7.5	7.8
- 채 권 등	31.9	7.6	33.1	7.1	33.3	5.6	34.9	12.6	34.7	5.9
- 수익증권	0.6	0.1	0.6	6.0	0.9	2.0	1.4	9.6	1.5	12.0
○만기보유증권	2.8	9.9	2.9	9.1	3.1	5.9	3.2	5.8	3.3	8.8
- 채 권 등	2.8	9.9	2.9	9.1	3.1	5.9	3.2	5.8	3.3	8.8
○투자주식 ¹⁾	0.5	21.3	0.5	24.8	0.6	34.3	0.6	18.6	0.7	19.9
대 출 채 권	18.0	8.4	18.3	8.3	18.0	7.9	17.6	7.9	17.6	8.1
부 동 산	8.1	2.7	8.1	2.9	7.9	2.6	7.7	3.1	7.5	3.5
운 용 자 산 계	86.1	7.5	86.1	7.4	85.7	5.9	86.1	6.6	85.2	6.9
비 운 용 자 산	13.9	-	13.9	-	14.3	-	13.9	-	14.8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96.2)	6.7 -	100.0 (96.4)	6.6 -	100.0 (96.6)	5.1 -	100.0 (96.7)	5.7 -	100.0 (96.2)	6.0 -
특 별 계 정 자 산	3.8	-	3.6	-	3.4	-	3.4	-	3.8	-
총 자 산	100.0	6.5	100.0	6.3	100.0	4.9	100.0	5.5	100.0	5.7

주: 1) 수익률은 누적실적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5 3/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를 살펴보면, T/M 및 C/M이 포함되어 있는 회사직급과 방카슈랑스의 비중이 소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
- 방카슈랑스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4%p, 전분기 대비 0.1%p 증가한 3.2%를 나타내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회사직급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분기대비 0.3%p 증가한 12.3%를 기록하였음.
-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을 통하여 거수된 원수보험료 비중은 각각 35.8%, 47.0%를 기록하였으며, 보험설계사는 전년동기대비 0.3%p 증가, 대리점은 전년동기대비 2.7%p 감소하였음.

<표 1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2/4	3/4	4/4	1/4	2/4	3/4
회사직급	9,627	14,500	18,559	6,845	14,617	28,894
	8.6	8.5	8.2	11.4	12.0	12.3
보험설계사	39,889	60,254	80,439	20,929	43,592	66,438
	35.8	35.5	35.5	35.0	35.9	35.8
대 리 점	55,335	84,414	112,552	29,157	57,563	87,361
	49.7	49.7	49.7	48.7	47.4	47.0
중개사	990	1,700	2,123	766	1,302	2,133
	0.9	1.0	0.9	1.3	1.1	1.1
T/M	2,361	3,848	5,445	-	-	-
	2.1	2.3	2.4	-	-	-
C/M	642	1,029	1,426	-	-	-
	0.6	0.6	0.6	-	-	-
방카슈랑스	1,759	3,099	4,538	1,801	3,806	5,999
	1.6	1.8	2.0	3.0	3.1	3.2
공동인수	776	1,115	1,468	329	626	954
	0.7	0.7	0.6	0.5	0.5	0.5

주: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생산성〉

□ FY2005 3/4분기 손해보험의 모집조직 생산성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생산성이 하락한 반면, 대리점의 경우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 보험설계사의 생산성은 장기손해보험 판매를 위한 설계사 확대에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4.6% 감소하였고, 대리점 생산성은 대리점수 축소에 기인하여 전년동기대비 5.4%의 증가를 나타냈음.

○ 임직원의 경우 온라인 채널 실적이 포함되면서 전년동기보다 3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8>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4			FY2005		
	2/4	3/4	4/4	1/4	2/4	3/4
임 직 원	21,489	21,731	22,026	24,738	22,223	25,611
	44,800.0	66,727.1	84,260.5	27,669.0	65,774.4	89,390.5
보 험 설 계 사	63,759	65,488	61,539	63,818	59,739	75,728
	62,561.5	92,007.4	130,711.7	32,795.0	72,970.3	87,732.5
대 리 점	47,479	46,615	45,953	45,785	43,193	45,758
	116,546.9	181,087.5	244,928.2	63,682.9	133,270.1	190,919.3

주: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조혜원 선임연구원, 최원 연구원)

보험제도 및 시장 동향

1.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결과 및 영향

<개요>

감독당국
제2단계
방카슈랑스
영향분석 실시

- 감독당국은 '05.4월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영향분석의 일환으로 '05.4~12월 기간의 방카슈랑스로 인한 변화분석을 실시하였음.
- '05.4~6월까지의 실적에 대한 영향분석이 대상 기간이 짧았던 점을 감안하여 대상 기간을 '05.4~12월로 확장하여 영향분석을 실시하였음.

<방카슈랑스 영업현황>

<표 1> 방카슈랑스 영업실적

(단위 : 억원)

'04.4~12월			'05.4~12월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
28,034	3,098	31,132	34,394	5,999	40,393 ²⁾

주: 1) 수입보험료 기준임.

2) 110개 금융회사(은행17, 증권21, 저축은행72)에서 판매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표 2> 방카슈랑스의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전체보험료	방카슈랑스 보험료	비율
'05.4~12	수입보험료	646,772	40,393	6.2
	초회보험료	169,250	19,203	11.3
'03.9~'05.12	수입보험료	1,861,426	107,622	5.8
	초회보험료	494,470	69,809	14.1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금융기관보험

대리점

**보험판매실적이
증가함.**

- '05.4~12월 기간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판매실적이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4조 39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별로는 은행의 비중이 97.3%로 나타났으며 전체채널에서 수입보험료 기준 6%, 초회보험료 기준 11%, 1단계 상품 초회보험료기준 29%를 각각 차지하였음.
-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후에도 은행은 대부분 1단계 방카슈랑스 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2단계 순수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기준 1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단계 상품은 보장성 보험으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험금 지급분쟁 등 소송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보험료가 저렴하여 모집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이 판매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함.
- '05.4~12월 기간에 은행 등의 보험판매 대가로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모집수수료는 3,96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생보 22%, 손보 80%) 증가하였음.
- 생명보험에 비하여 손해보험의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하여 장기보험을 집중 판매한 결과로 분석함.

<표 3> 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 현황

(단위 : 억원)

'04.4~12월			'05.4~12월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	생명보험	손해보험	계
2,560	472	3,032	3,120	848	3,967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제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결과 및 영향>

①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중소형보험사와 은행의
제휴가 크게
증가함.

- 중소형 보험회사와 은행의 제휴가 증가하여 '05.12월 현재 제휴를 희망하는 보험회사는 모두 은행과 제휴가 되어 있음.
- 보험회사와 은행간의 제휴건수는 총 259건(생명보험 142건, 손해보험 117건)으로 전년말 대비 43% 증가함.
- 대형보험회사*의 제휴건수는 11% 증가한 반면 중소형보험회사는 제휴건수가 80% 증가함.

*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화재

- '05.4~12월 중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이 대형사의 경우 37%로 전년동기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외국사의 경우 21%로 10%p감소한 반면, 국내 중소형사는 42%로 10%p 증가하였음.

② 모집종사자에 대한 영향

설계사 인원은
방카슈랑스
실시 직전
수준을 유지함.

- '05.12월말 현재 설계사 인원은 20만 2천명으로 방카슈랑스 실시 직전인 '03.8월말 설계사 인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회사는 외환위기 이후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T/M과 C/M 등의 통신판매 확산으로 인하여 설계사의 수가 줄어들었으며, 손해보험회사는 최근 장기보험 영업 강화를 위해 설계사를 증원하였음.
- '05.12월말 현재 보험대리점은 5만 5,149개(생명보험 9,391개, 손해보험 45,758개)로 2002년 이후 매년 2%내외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대리점 영업력 강화를 위하여 상당수의 개인대리점이 법인 대리점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표 4> 보험설계사 인원 변화

(단위 : 만명)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03.8월	'05.12월	증 감	'03.8월	'05.12월	증 감
대형사	8.3	7.9	-0.4	4.0	5.6	1.6
중소사	5.9	4.7	-1.2	1.7	2.0	0.3
계	14.2	12.6	-1.6	5.7	7.6	1.9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③ 보험소비자에 대한 영향

방카슈랑스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행됨

- ☐ 금융기관대리점의 방카슈랑스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취소율은 '05.1~12월 기간 중 12%로 전년 동기간 대비 2%p 증가함.
 - o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고 보험계약 품질보증 향상을 위해 콜센터 등을 적극 운영하여 계약취소율은 소폭의 증가에 그친 것으로 분석함.
- ☐ 방카슈랑스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강화로 인하여 신계약비를 표준예정신계약비의 70%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보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났음.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6. 2. 22.

(최원 연구원)

2. 퇴직연금 2006년 2월말 영업실적

금감원

'05.12월~'06.2월
까지 퇴직연금
영업실적을
발표함.

□ 금감원은 '05.12월~'06.2월까지 퇴직연금 영업실적을 집계한 결과, 계약체결 2,788건, 적립금액 313.8억원이라고 발표함.

- 은행 2,608건, 195.6억원(62.3%), 보험 135건, 93.5억원(29.8%), 증권 45건, 24.7억원(7.9%) 순으로 나타났음.
- 연금종류별로는 확정기여형(DC) 134.2억원(42.8%), 개인퇴직계좌(IRA) 92.8억원(29.5%), 확정급여형(DB) 86.8억원(27.7%)으로 나타남.
- '06.2월에는 1,393건, 적립금 규모 313.8억원으로 '06.1월(1,044건, 221.4억원) 대비 33.4%, 41.7% 각각 증가하였음.

<표 1> 퇴직연금 계약현황

(단위 : 건, 명, 억원)

구 분	은행		보험		증권		합계
		비중(%)		비중(%)		비중(%)	
계약건수	2,608	93.6	135	4.8	45	1.6	2,788
	(1,294)	(92.8)	(83)	(5.9)	(18)	(1.3)	(1,395)
가입자수	17,770	80.2	3,152	14.2	1,228	5.6	22,150
	(9,858)	(76.3)	(2,487)	(19.2)	(580)	(4.5)	(12,925)
적립금액	195.6	62.3	93.5	29.8	24.7	7.9	313.8
	(148.9)	(67.2)	(55.5)	(25.1)	(17.0)	(7.7)	(221.4)

주: ()는 2006년 1월 기준 운용실적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표 2> 퇴직연금 종류별 적립금 및 계약건수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퇴직계좌(IRA)				합 계
	비중	비중	기업형	비중	개인형	비중			
적립금액	86.8 (74.5)	27.7 (33.6)	134.2 (75.0)	42.8 (33.9)	88.3 (69.0)	28.1 (31.2)	4.5 (2.9)	1.4 (1.3)	313.8 (221.4)
계약건수	133 (96)	4.8 (6.9)	489 (266)	17.5 (19.1)	2,139 (1,025)	76.7 (73.5)	27 (8)	1.0 (0.5)	2,788 (1,395)

주: ()는 2006년 1월 기준 운용실적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의 적립금
운용

□ 적립금 운용은 은행상품이 135.5억원(43.2%), 보험상품 90.8억원(28.9%), 간접투자상품 62.9억원(20.1%), 기타 24.6억원(7.8%)으로 나타났다.

○ 원리금보장상품(금리형보험 및 예·적금)이 219.7억원, 70.0%를 차지했으며, 실적배당형상품(실적배당형보험, 간접투자상품)은 69.5억원, 22.1%를 차지하였음.

○ 안정성을 중시하는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의 운용이 이루어졌음.

<표 3> 적립금 운용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원리금 보장		실적배당		직접투자		기타	합계
	예적금	보험상품		간접 투자	주식	채권		
		금리형	실적배당형					
적립금액	135.5	84.2	6.6	62.9	-	-	24.6	313.8
(비중%)	(43.2)	(26.8)	(2.1)	(20.1)	(-)	(-)	(7.8)	(100)

주: 기타는 운용 등을 위한 대기자금(교유계정대, MMF, RP, 발행어음 등)

자료: 금감원 보도자료

**실적배당형상품
의 투자 비중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함**

- 제도도입 초기이므로 원리금보장상품의 비중이 높으나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와 신규 퇴직연금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인하여 향후 실적배당형상품의 투자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함.
- 개인퇴직계좌(IRA) 개인형의 경우에 올해 초 세제정비 등에 따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임금협상이 체결되는 상반기 이후에는 대기업 등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 대기업의 참여로 대규모의 적립금이 유입될 경우 주식 및 채권의 직접투자 등 더욱 다양한 적립금 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6. 3. 14.

(최원 연구원)

3. 해약환급금 지급기준 및 표준이율 산출식 변경

<개요>

해약환급금지급기준 및 표준이율산출식개정

-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약환급금 지급기준 및 표준이율 산출식을 개정(2005년 12월 23일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등)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임.
- 저축성보험에서 해약환급금 계산시 차감하는 해약공제액(미상각신계약비)의 한도를 축소
- 책임준비금 산출시 적용되는 표준이율 산출식의 기준금리를 4.0%에서 3.5%로 조정하고 보험기간의 장·단기에 따라 이원화하며 안전계수를 조정함.

<주요내용>

① 해약환급금 지급기준 변경

해약환급금지급기준, 표준신계약비율 한도변경

-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계산*시 차감되는 미상각신계약비에 적용되는 신계약비의 기간 한도를 현행 20년(연금 12년, 교육 17년)에서 보험종목에 관계없이 12년으로 축소

<표 1> 표준신계약비율 한도 변경

$\frac{\text{연납순보험료의 } 5\% \times \text{보험기간} + \text{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10/1000}$	➡	$\frac{\text{연납순보험료의 } 5\% \times \text{보험기간} + \text{보장성보험의 보험가입금액}}{10/1000}$
주: 보험기간은 20년(연금보험은 12년, 교육보험은 17년, 종신보험 25년*)을 최고한도로 함.		주: 보험기간은 20년(저축성보험은 12년)을 최고한도로 함.

* 2005. 3. 종신보험의 25년 예외인정조항 폐지(2006. 4. 1.시행예정)

② 책임준비금 산출시 적용 표준이율체계 변경

기준이율의
인하와

표준이율체계
의 이원화

- 충실한 책임준비금 적립을 통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표준이율의 산출체계를 개선
 - 표준이율의 기준금리를 현행 4%에서 3.5%로 조정
 - 보험기간 15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성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 금리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고자 표준이율 이원화
 -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표준이율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계수 조정

<표 2> 표준이율 산출체계 변경

$4\% + (R-4\%) \times \text{안전계수}$ - 안전계수 : 0.45	→	$3.5\% + (R-3.5\%) \times \text{안전계수}$ - 안전계수: 보험기간 15년이 하 0.4, 15년초과 0.3
---	---	---

- R : 연동지표(3년만기, 신용등급AA - 회사채수익률*)

* 12월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평균 회사채수익률과 최근 36개월 평균 회사채수익률중 작은 값으로 산출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

(김진익 선임연구원)

4. FY2005 상반기 보험모집조직 경영효율분석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05년 4월~9월 기간 동안의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 보험모집조직의 현황 및 이와 관련된 경영효율실적 등을 분석하였음.

<주요내용>

① 보험모집조직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모집실적이 저조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T/M과 C/M 등 통신판매의 확대로 보험설계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나 최근 보험설계사가 소수 정예화되어 2003년 이후에는 20만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보험설계사의
정예화에 따라
20만명수준으로
유지

<표 1> 보험설계사수 추이

(단위 : 만명)

'00.3월말	'01.3월말	'02.3월말	'03.3월말	'04.3월말	'05.9월말
32.6	28.4	22.7	20.3	20.2	20.1

- 보험대리점은 최근 경쟁력이 취약한 개인대리점이 통합되어 법인 대리점으로 대형화됨에 따라 그 숫자가 감소하고 있음.

보험대리점은
대형화에 따라
숫자감소

- 특히, 일부 법인대리점은 모집사용인 수가 1,000명을 넘는 등 대형판매전문회사로 발전하고 있음.

<표 2> 대리점수 추이

(단위 : 천개)

	'00.3월말	'01.3월말	'02.3월말	'03.3월말	'04.3월말	'05.9월말
대리점	60	59	59	58	55	53
(법인)	(2.0)	(2.5)	(3.5)	(4.0)	(5.0)	(6.0)

② 경영효율

□ 보험설계사 정착율

최근
설계사정착율은
생보의 경우
개선되고
손해의 경우는
하락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설계사 충원방식을 기존 설계사의 추천으로 증원하던 방식에서 금융·의료기관 경력자 등의 스카우트 방식(리크루팅)으로 전환하고, 우수 설계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영업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정착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장기보험분야의 영업강화를 위해 설계사 충원을 확대하였으나 종전 생보사의 설계사 증원방식을 그대로 답습함에 따라 FY02이후 정착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음

<표 3> 보험설계사 정착률

(단위 : %)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05.4~9
생명보험	22.4	28.8	31.2	31.2	33.7	34.7
손해보험	39.8	39	43	39.7	38.8	36.5

□ 보험계약 유지율

최근보험계약
유지율
감독당국과
업계노력으로
개선

- 2003년 이후 경기회복 지연으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계약 해지가 증가됨에 따라 보험계약 유지율(25회차)이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 2005년에는 점진적인 경기회복세 조짐과 감독당국의 보험상품 모범판매기준 제정유도, 보험업계의 설계사에 대한 완전판매 교육강화 등으로 보험계약유지율이 상승세로 반전되었음

<표 4> 보험계약 유지율

(단위 : %)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05.4~9
13회차	71.3	78.9	79.2	73.6	79	79.2
25회차	54	59.5	65.6	62.5	58.3	64.5

□ 보험모집조직의 생산성

- 보험설계사는 소수 정예화 등으로 1인당 월평균 보험모집액 및 월평균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5년
생명보험설계사
월평균 소득
300만원초과

- 특히 2005년에는 생명보험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이 324만원에 달하여 처음으로 300만원을 초과하였음

<표 5> 보험설계사 월평균 모집액/소득 추이

(단위 : 만원)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05.4~9
월모집액	1,400	1,600	1,800	1,900	2,000	2,100
월소득	170	200	230	240	250	260
(생보설계사)	(210)	(221)	(262)	(274)	(294)	(324)

- 보험대리점은 경쟁력이 취약한 개인대리점이 법인대리점에 통합되는 등 대리점의 대형화로 보험대리점 1개당 월평균 보험모집액 및 월평균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6> 보험대리점 월평균 모집액/소득 추이

(단위 : 만원)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05.4~9
1,200	1,500	1,900	2,200	2,500	2,800
150	210	270	300	360	410

(김진억 선임연구원)

5.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안정성을
가장 우선시

- 금감원은 2005년 12월 20세 이상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서울, 부산 등 5대 도시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금융거래 이용실태:** 경제생활에서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금융상품 선택시 예상손실 설명이나 약관의 사전인지가 미흡한 실정
 - 개인의 경제생활에서 금융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9.1%에서 2005년 54.9%로 증가함.
 - 예상손실을 충분히 설명받은 경우는 45.7%에 불과하며, 약관을 읽어 본 후 거래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8.7%에 불과함.
- **금융회사 이용실태:** 금융회사 선택시 소비자들은 **안정성(26.5%)**, 수익성(23.9%), 서비스 다양성(13.1%) 등을 우선시하고, 선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요인으로서는 **낮은 수익률(21.9%)**, 거래수수료 과다(13.7), 대출관련 불만(8.2%) 등으로 나타남.
- **금융교육 요구수준:** 금융교육 요구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적금, 대출·보증, 투신상품, 생명보험상품 순으로 교육을 희망하였고, 교육방식의 선호도는 **공개강좌(37.1%)**, 매스컴(30.2%), 책자나 홍보물(18.4%), 인터넷(14.1%) 순으로 나타남.
- **금융분쟁 대응방법:** 금융분쟁 발생시 주요 대처방법으로는 **주변 사람 자문(53.3%)**, 금감원 이용(23.3), 인터넷 검색(20%), 직접 법률검토(20%) 등으로 나타남.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6. 2. 21.

(최영목 부연구위원)

해외보험 동향

1. 미국동향

<2006년 손해보험 전망>

III는 손해보험
2005년 추정
및 2006년
전망을
조사 발표

- o III(the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의 2006년 미국 손해보험 전망에 따르면 보험료성장이 2005년 상당히 안정된 후 2006년에는 가열될 것으로 전망함.
- o 금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기록적인 재난손실과 준비금충당금으로 인해 2005년 보험영업손익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에는 언더라이팅 성과의 개선으로 적으나마 보험영업이 익을 낼 것으로 전망함.

□ 보험료전망 : 카트리나에 의한 영향 “Mini Hard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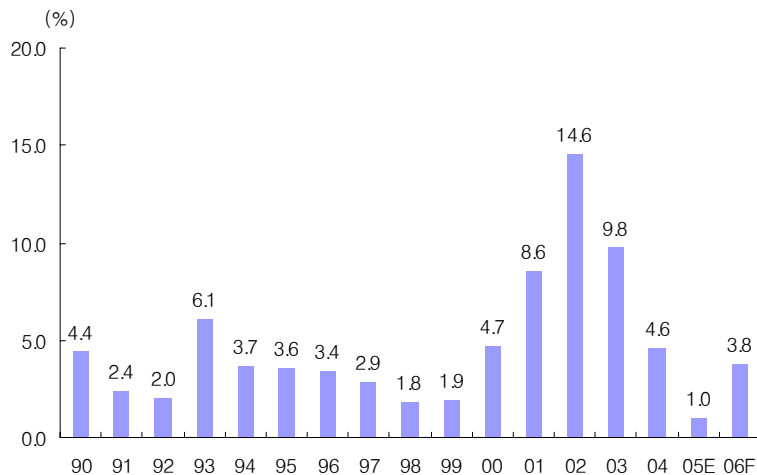
2006년
원수보험료
3.8% 성장전망

- o 2006년 원수보험료(net written premium)는 3.8%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1.0%(추정치)보다는 증가한 것임.
- o 2006년의 3.8% 성장전망은 카트리나 이후 경색시장(hard market)에 의해 낮아진 것으로 2005년 12월 당시 분석가들은 III의 Early Bird survey에서 2006년 보험료는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었음.
- o 이와 같은 2006년 보험료 성장 전망은 2005년 568억 달러에 달하는 기록적인 재난손실이 역량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보험사들로 하여금 미국의 재난위험지역에서의 위험을 재평가하고 있는데 기인함.

- 또한 분석가들은 원수보험과 재보험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결과적으로 공급/수요불균형은 “mini-hard market”을 유발시켜 일정 유형의 담보에 대한 보험과 재보험의 가격, 특히 재물보험과 재물재난재보험담보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임.
- 일부 분석가들은 hard-market 상황이 특종보험 종목(손해배상, 근로자보상 등)으로까지 번질 것으로 믿고 있음.
- 최근 증거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2005년 4/4분기에 기업성 특종보험의 가격이 지난해 폭풍에 의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는 보험사들과 재보험사들이 2005년 중 가격이 하락해왔던 특종보험에서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하고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성 재물과 재보험분야로 자본을 재배치하고 있기 때문임.

일부
분석가들은
hard-market
상황이
특종보험으로
확대될 것으로
믿음

<그림 1> 원수보험료 성장률 추이



출처: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A.M. B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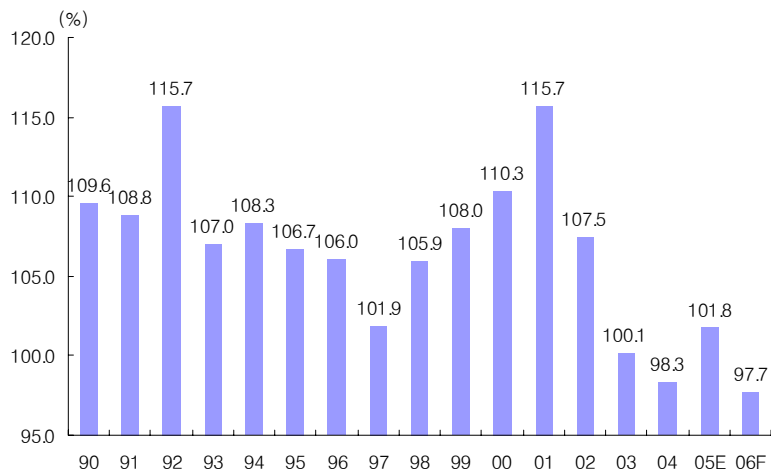
합산비율은
2005년 101.8로
추정,
2006년은 97.7로
전망

- 합산손해율 : 2005년, 2006년 개선전망
 - 2006년 보험료의 손해율과 사업비율에 대한 비율인 합산비율은 97.7로 전망됨.
 - 이는 2005년 추정치인 101.8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이나 2004년 실적치 98.3과는 크게 다르지 않음.
 - 만약 2006년 합산비율이 전망한대로 100이하로 낮아질 경우 60억~70억 달러 보험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것은 1978년 이래 손해보험산업에서 두 번째로 보험영업이익이 발생될 것임.
 - 2006년에 대한 전망은 보다 “정상적인” 재난손실수준으로 회귀를 가정한 것임.
 - 2005년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데 이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리타, 월마 그리고 테니스로부터의 가입손해액의 상당부분이 궁극적으로 외국 재보험사들에게 전가될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2005년 합산비율은 준비금충당금(reserve charges)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임.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석면보상이 가장 큰 문제이며, 준비금충당금(reserve charges)은 보험산업이 적긴하지만 보험영업손실(추정합산비율 101.8과 관련)을 낼 정도로 충분히 클 수 있음.
 - 설문조사결과는 개선 예상을 나타내는 반면, 결산결과는 보험산업이 거의 정확하게 보험료만큼 보험금과 관련비용으로 지출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상당한 보험영업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상 2004년 98.3의 합산비율은 단지 10.5%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산출한 반면 2005년 9개월간 100.0의 합산비율로 9.5%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보임.

적정한
ROE산출을
위해서는
보험영업이
중요

- 보험사와 재보험사를 후원하는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엄청난 위험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익률은 상당히 불충분함.
- 13%~14%정도의 Fortune 500 수준의 ROE는 최근 이자율상승과 투자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으로부터의 상당한 기여가 없이는 달성할 수 없음.

<그림 2> 합산비율 추이



출처: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A.M. Best.

- 2006년 전망종합 :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안상존
 - o 2006년 가장 큰 잠재적 하락위험은 가격설정손실과 언더라이팅 통제보다는 가장 큰 관심거리였던 재난손실에 대한 노출임.
 - 또한 보험사들은 2006년 가격설정시 2005년의 기록적 재난손실의 충격을 과대평가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짐.
 - 이는 분석가들의 2006년 원수보험료 전망이 최저 1.3%에서 최대 6.5%에 이를 정도로 의견이 다르게 했던 원인이며 재난요소는 가격설정과 언더라이팅 통제에 대해 크게 영향을 줌.

2006년은
보험영업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재난손실에
대한 불안상존

**주요
외부위험은
보험회사
재무성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

- o 주요 외부위험 중에 불법행위비용(tort costs)은 2005년 단체행위법(the Class Action Fairness Act)의 통과와 의료사고개혁에 대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재무성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들 중에 하나임.
- 석면법은 아마도 정부의 현재 신탁펀드계획안을 반대하는 보험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실망을 안겨준 입법안일 것임.
- 석면문제는 준비금충당금을 부담하는 보험사들로 인해 보험산업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테러 또한 12월 22일 테러리스크법이 2년 연장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관심사임.
- 테러리스크법의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은 대규모 테러가 사적으로 부보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민영 보험사들에게 상당히 위험을 주었는데 예를 들어, 개별회사의 공제금은 2005년 경과보험료의 15%에서 2006년 17.5%, 2007년 20%로 인상됨.
- 마찬가지로 산업 총공제금은 현재 150억 달러에서 2006년 250억 달러, 그리고 2007년 275억 달러로 증액되었음. 보험사들은 실제 9/11 손실과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준비금(retention)을 쌓게 될 것임.

<표 1> 원수보험료 성장률

(단위 : %)

회 사	2005년 추정	2006년 전망
Raymond James	0.4	6.5
Lehman Brothers	0.2	6.1
Firemark Investments	2.5	6.0
A.G. Edwards	2.7	5.0
Williams Capital	-0.5	4.5
Gill & Roeser	1.5	4.0
Fitch Ratings	1.9	3.9
Tillinghast	2.4	3.9
Bear Stearns	n/a	3.0
Merrill Lynch	1.2	3.0
Langen McAllenev	1.0	2.5
Standard & Poor's	-1.5	2.0
Conning & Co.	1.2	1.3
ISO	-0.3	1.3
평 균	1.0%	3.8%

<표 2> 합산비율(배당후)

(단위 : %)

회 사	2005년 추정	2006년 전망
Conning & Co.	103.3	100.3
Gill & Roeser	102.5	100.0
ISO	101.6	99.5
Bear Stearns	n/a	99.0
Merrill Lynch	100.0	98.5
Lehman Brothers	102.6	98.1
A.G. Edwards	110.1	98.0
Firemark Investments	102.8	98.0
Standard & Poor's	98.0	98.0
Tillinghast	101.1	97.6
Fitch Ratings	100.8	96.9
Raymond James	100.8	95.5
Williams Capital	99.6	94.3
Langen McAllenev	100.0	94.0
평 균	101.8	97.7

*자료: Robert P. Hartwig, "Groundhog Forecast for 2006",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2005. 2.

(김진익 선임연구원)

보험동향 2006년 봄호

<교차판매>

LIMRA는
교차판매의
판매부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
실시

교차판매에
있어
설계사들의
가장 큰
장애는
시간부족

□ 교차판매(Cross-selling)*는 설계사와 판매회사에 이득이 되나 교차판매가 증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문점이 지속됨에 따라 LIMRA는 이 주제에 대해 보험판매회사(multiple line companies)와 소속 설계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 여기서 교차판매는 한 가구에 대해 다른 상품종목(자동차, 주택종합, 생명)을 판매하는 것으로 정의됨.

□ 판매회사들은 소속 설계사들이 교차판매를 늘리기 희망하지만 설계사들에 따르면 교차판매를 늘리는데 가장 큰 장애는 시간이라 응답함.

- 교차판매를 늘리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와 설계사들은 양자 간에 존재하는 의사소통 갭을 좁힐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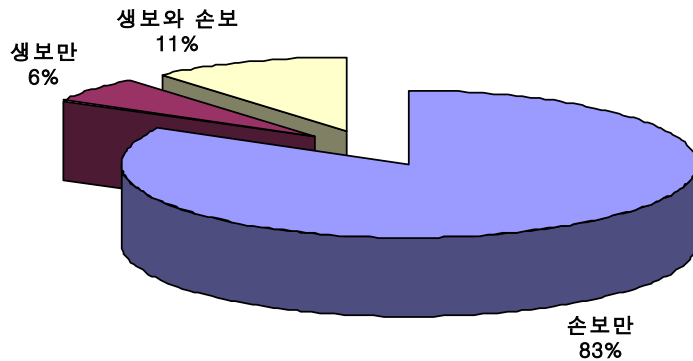
□ 보험상품판매에 있어 새로운 상품 판매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함.

□ 교차판매 활동(Cross-Selling A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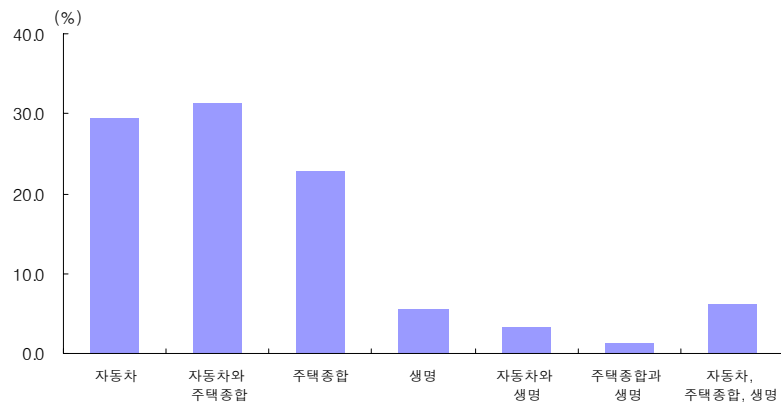
○ 보험판매회사 자료에 의하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상품을 동시에 구매한 고객은 평균 11% 정도로 나타남.

- 이들 가구는 적어도 하나의 생명보험과 하나 이상의 개인손해보험(P/C)상품(자동차, 주택종합보험)을 소유하고 있음.

<그림 1> 2004년 가구자료 : Multiple-line industry



<그림 2> 종목별 가구비율



* 보험설계사 표본 특성: 78%가 남성이며 49%가 50세 이상이었고 또한 60%가 독립설계사임(independent contractors). 이들중 41%가 10만~20만 달러의 순수입을 올림.

설계사들과
소속판매회
사간의
의사소통이
중요

□ 의사소통차이의 극복

- 소속설계사들은 보험판매회사들이 바라는 것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음.
- 51%의 설계사들은 자신들의 회사의 기업목표가 손해보험판매를 강조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판매회사의 절반이상은 회사의 목표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판매를 동일하게 중요시한다고 생각함.
- 판매회사와 설계사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성공을 위해 필수적임.
- 77%의 설계사들이 본사 사무실과의 의사소통을 “매우 좋음” 혹은 “좋음”으로 평가하나 개선의 여지가 있음.

<표 1> 판매강조에 대한 의식

판매강조점	설계사	본사사무실
손해보험 우선	51%	31%
생명보험 우선	22%	15%
생보/손보 동일	27%	54%

□ 설계사 활동

- 이 조사에서 설계사들은 평균적으로 1,251개의 자동차보험증권, 824개 주택종합보험증권, 그리고 309개 생명보험증권을 관리함.
- 68%의 보험설계사들은 신고객에게 판매하는 첫 번째 상품이 자동차보험이라고 말함.
- 거의 50%의 설계사들이 손해보험판매로 200,000달러 이하의 신계약보험료를 판매하고 있음.
- 58%의 설계사들이 모든 개인보험종목으로부터 총보험료(초년도와 갱신보험료)로 1백만 달러 이상 가지고 있음.

□ 보험설계사 의견

<표 2> 보험설계사 설문조사 결과

	매우 동의	동의	중립	동의 안함	매우 동의 안함
첫판매가 두 번째 판매 를 수월하게 함.	65%	33%	1%	0%	0%
고객서비스가 성공에 있 어 중요함	88	12	0	0	0
전 상품을 제공하는 것 이 나의 전문성을 증진 시킴.	60	31	7	1	1
소속회사가 제시하는 모 든 상품을 파는게 편함.	38	34	16	10	1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의 보험과 금융서비 스필요에 윈스톱쇼핑을 제공하는 것임.	66	27	5	1	0
고객에게 여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공정하게 보상됨.	26	35	23	11	5

*자료: Laura A. Murach, "Covering All the Bases : Increasing Cross-Selling", LIMRA, 2005.

(김진억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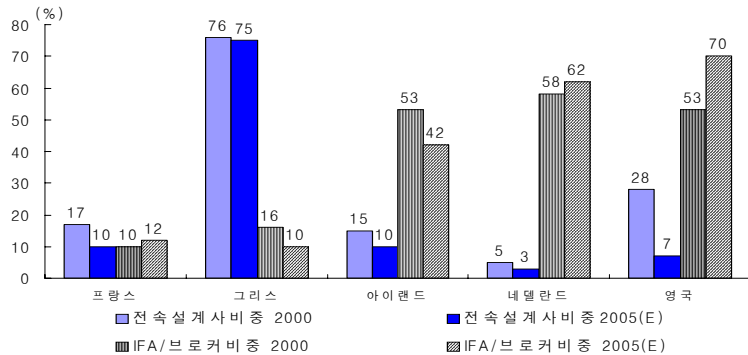
2. EU 동향

〈유럽에서 독립재무설계사(IFA) 채널 성장의 10가지 이유〉

독립적으로
금융자문업을
수행하는
IFA의
유럽에서
성장 배경을
10가지로
정리

- 유럽, 특히 영국에서 IFA(Independent Financial Advice) 채널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요인을 고찰하고자 함.
- 각 나라마다 방카슈랑스 혹은 직접판매조직과 같은 성공적인 판매채널이 있으며, 이들 채널은 단일 보험회사의 제품을 추천하고 판매함.
- 이에 반해 IFA 채널은 독립적으로 금융부티크처럼 여러 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기능을 수행함.
- 이하에서는 다음에 제시한 것과 같이 유럽 지역에서 IFA 채널이 성공하게 된 10가지 요인을 논의함.
 - ① 직접판매채널의 쇠퇴
 - ② IFA 채널이 최고라는 소비자들의 신뢰
 - ③ 소비자들의 부(wealth)의 수준 향상
 - ④ 정부의 연금문제 해결 노력
 - ⑤ 정부 복지시스템 유지의 어려움
 - ⑥ 소비자들이 소유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 증가
 - ⑦ 재정서비스에 대한 관심 증가
 - ⑧ 더욱 복잡해져가는 현대인의 삶
 - ⑨ 금융상품 선택 시에 개별적 여과장치의 필요성
 - ⑩ 은행과 IFA 사이의 경쟁 감소

<그림 1> 전속설계사와 IFA/브로커의 비중 변화



① 직접판매채널의 쇠퇴가 IFA채널의 진입공간 마련

직접판매
채널의
쇠퇴가 IFA
진입공간
제공

- 현재까지도 유럽지역의 많은 나라들에서 직접판매채널(direct sales forces)의 비중이 크지만, IFA채널의 비중이 증가하는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많은 수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다양한 분야에 치중하기 보다는 자사의 핵심역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함.
 - 장기간 금융시장 불안정과 까다로운 거래조건으로 인해 기업들이 비용에 더 민감하게 됨.
 - 엄격한 규제에 등장으로 인해 내근직원판매(in-house sales)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여 운영이 힘들어짐.
 - 또한 유럽통합규제(European regulation)는 향후 직접판매채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 내에서 유통망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몇몇 국가에서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생명보험 상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방카슈랑스 채널이 일정 부분 직접판매채널을 대신하게 됨.

- 영국에서, 이와 같은 직접판매채널의 쇠퇴는 소비자들이 IFA를 찾게 되는 효과를 초래했음.
- 영국보험사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의 추정에 따르면 1994~2000년 사이에 체계적인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가계는 3백만에 달함.
- 결과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자문서비스를 받기 위해 IFA 채널로 발걸음을 돌리게 됨.

② 소비자들의 개별적인 일대일 자문 서비스 선호

일대일
자문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증가

- Henley Centre의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나 은행의 매니저보다 IFA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룹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주위 친구나 배우자 등의 권유나 조언이 보다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
- 독일의 경우 고객들이 거래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문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높으며, 이러한 상황에 편승하여 IFC(Independent Financial Consultant)가 성장함.
- 개인정보의 유출을 꺼리는 은행고객들은 거래은행의 금융과 관련된 조언을 신뢰하지만, 추가적으로 투자, 보험, 세금, 연금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상황임.
- 여러 조사에 따르면, 고객들은 이러한 상황을 불만족스럽게 여기며, 특히 자신들의 거래은행에서 제공하는 자문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음.
- 최근 몇 년 사이에 IFC들은 이러한 상황에 편승하여 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사업성 기회를 확장해감.
- 영국의 경우에도 프라이빗뱅킹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서 조차 은행의 금융자문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는 경향이 나타남.

- o Tulip Financial Research에 따르면, 고객 중 프라이빗뱅킹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을 받는 고객은 22%이며 신탁 혹은 세금에 관한 자문을 받는 고객은 8%에 지나지 않음.
- o 영국 사무변호사협회(The Law Society)에서도 변호사가 재정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입료를 받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어서 독립재정자문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

③ 소비자들의 부(wealth)의 수준 향상으로 자산관리와 재정설계 컨설팅 기회 증가

부유층
증가로 인해
새로운
자문서비스의
수요 증가

- 영국 내에서 소비자들의 부의 수준이 증가하고, 새롭게 부유층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짐.
 - o Datamonitor의 보고에 따르면, 1995~2003년 사이에 백만장자의 수가 17%이상 증가하였으며, 백만장자 그룹의 2/3가 55세 이하이며 재산상속을 통해 부를 형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업가 혹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기업 중역들이 많음.
 - o 새롭게 백만장자로 등극한 사람들은 부유층으로 태어난 백만장자들에 비해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경험이 없으며 이를 관리한 경험도 상대적으로 부족함.
 - o 이와 같이 '새로운 돈(new money)'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객의 성향을 반영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관리방식이 필요함.
- 백만장자 그룹 이외 계층의 소득도 증가하여 2003년도 순부(net wealth)는 약 82,500파운드로 추정되었으며, 이후 2년간 1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o 이러한 부의 증가는 해외투자로 인한 재산증식에 기인한 것으로서 유럽 전역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음.
 - o 개인들의 부의 증가로 인해 IFA가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짐.

- o Tulip Research의 보고에 따르면 영국에서 부유층의 약 40% 가량이 IFA를 이용하고 있음.

④ 정부의 연금문제 해결 노력이 IFA 성장을 촉진

정부의
자기적립식은퇴
연금의 장려로
인해
재무설계에
대한 필요성
증가

-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주로 개발도상국에 의해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o 2030년에는 유럽 인구의 25%가량이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할 전망이다.
- o 그 결과 유럽 정부는 미래에 발생할 부채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자기적립식은퇴연금(self-funded retirement provision)의 채택을 장려하고 있음.
- o 기존에는 여러 연금을 통해 돈을 축적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으나,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대비를 위해 재무설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
- 현재 유럽지역의 IFA에 의해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뮤추얼펀드이지만, 향후 IFA들에게 가장 많은 수익성 기회를 제공할 상품은 연금이 될 것으로 기대함.
- o 다수의 유럽 지역 정부들은 소득 중하위 계층의 연금 가입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다 저렴한 행정서비스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상품을 제공토록 유도함.
- o 저렴하고 단순한 연금 상품의 개발은 IFA들이 개인들로부터 펀드를 모집할 여지가 축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연금시장의 성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

⑤ 정부 복지시스템 유지에 대한 재정부담 증가는 IFA에게 사업성 기회를 제공

- 기대여명의 증가와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정부 복지시스템의 재정 압박이 심해짐.

공적연금의
재정부족이
개인연금의
증가로 이어져
IFA의
사업성 기회
증가

- 1996년 영국에서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국민건강의료보험 (National Health Service)의 급여를 기다리는 문제가 대두됨.
- 1993~2061년 사이에 65세 이상 인구는 5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수반되는 국민건강의료보험의 비용은 70%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공적연금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인상을 실시하는 데에도 한계가 발생하여 이외의 여러 가지 해결책을 시행함.
- 사적연금 펀드의 신규가입이 불가능하거나 재정손실이 발생한 상태로 펀드가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세금인상에도 어려움이 따름.
- 이로 인해 프랑스의 경우 공무원이 전액연금(full pension)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근무년수를 35년에서 40년으로 올렸으며, 독일의 경우 최소 은퇴연령을 남녀 각각 65세와 60세에서 남녀 모두 67세로 상향조정함.
- 결국, 사회 전반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변화로 인해 정부 복지시스템에 의존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형성되어 IFA가 고객들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여지를 마련하게 됨.

⑥ 수명증가로 인해 축적된 자산으로부터 최대한의 투자수익을 올릴 필요성 증가

수명증가로
인해 노년을
즐기기 위한
최대한의
투자수익이
요구되어
투자자문업의
수요 증가

- 수명증가로 인해 투자수익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금융서비스 혹은 IFA들은 사업성 기회를 얻음.
-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가운데 개인들은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보다는 삶을 즐기기 위해 보다 많은 투자성과를 올리 고자 함.
- 그런데 주식, 연금, 모기지 등의 자산에 투자할 경우의 복잡성 및 위험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금융서비스를 찾게 됨.

소비자들이
정보획득이
용이해지고
IFA와
접촉하기
쉬워짐

⑦ 개인의 정보 접근성이 용이해져 IFA를 찾기 쉬워짐.

- 대부분의 대중매체가 금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전문적인 금융정보에 접근하기가 용이해지고, 이러한 금융정보에 기초하여 IFA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음.
- 예전에는 *Financial Times*와 같은 전문 매체만이 금융정보를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대중매체에서도 금융정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추세로 변화함.
- 특히 대부분의 금융 저널리스트들이 어떠한 IFA가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는지 발표하는 사례가 많아서 소비자들이 저널리스트의 권위에 힘입어 IFA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짐.

⑧ 복잡해진 현대인의 삶 속에서 개별 자문의 필요성 증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개인적으로
독특한
금융문제의
증가에 따라
개별자문의
필요성 증가

- 2차세계대전 이후 사회발전이 복잡한 생활 양상을 잉태함으로써,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금융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짐.
- 예를 들어, 이혼율 증가로 인해 부부의 연금이나 기타 금융자산의 분할, British Telecom과 같은 공기업의 민영화 등과 같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금융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됨.
- 영국의 Liberata Financial Services가 개인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에 대한 이해도를 테스트한 결과 80%가 문제의 2/3를 풀지 못했음.
- 따라서 소비자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오해로 인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IFA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됨.

⑨ 금융상품 선택 시에 독립적인 선별장치의 필요성

- 금융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펀드의 수가 놀라울 정도로 많아지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어떠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성이 높은가에 대한 IFA들의 역할이 중요해짐.

상품의
종류와 수가
증가하여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IFA가
여과장치
역할을 수행

- 예를 들어, 2005년 1월 이후로 170만명의 부모들이 아동기금펀드 (Child Trust Fund)에 대한 지불보증전표(voucher)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단지 499,000계좌만이 개설됨.
- 이는 많은 부모들이 전표에 내재된 다양한 선택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금융상품의 종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횟수도 증가하고 여기서 IFA가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입지가 넓어짐.

⑩ 은행과 IFA 사이의 경쟁 감소

은행 고유의
업무영역에서
수익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과 IFA가
경쟁할 필요성
감소

- 은행들이 자신의 고유영역인 대출, 모기지, 신용카드 등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연금과 같은 상품에 주력할 필요성이 낮아짐.
- HSBC와 Royal Bank of Scotland는 자사의 고유 업무영역에서 각각 139억 유로와 115억유로의 수익을 올린데 반해,
- 2003년에 Lloyds TSB의 경우에는 고수익채권(high-income bond)을 잘못 판매하여 영국의 금융감독청(FAS)으로부터 2백 7 십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음.
- 결과적으로 은행들은 고유업무에 치중하면서 IFA와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게 됨으로써 IFA의 입지가 넓어짐.

*자료: Heath, Chris, "10 Reasons for the Growth of Independent Financial Advice in Europe", LIMRA, 2005.

(최영목 부연구위원)

<2005년 영국의 민영건강보험 시장>

2004년 영국
민영건강보험
성장세 주춤

① 2004년 영국의 민영건강보험 시장은 개인과 단체 부문 모두에서 위협요인의 증가로 인해 성장세 주춤

□ 개인 부문에서 2004년 경과보험료 성장률은 3.4%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2000년 이후 평균성장률 7.1%의 절반에 해당함.

<표 1> 영국 민영건강보험 경과보험료 및 성장률

(단위: 백만파운드, %)

	경과보험료 및 전년 대비 성장률					'00~'04 평균성장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개인	1,146	1,256	1,369	1,422	1,467	6.4
		9.6	9.0	3.9	3.2	
단체	1,092	1,253	1,363	1,418	1,469	7.8
		14.7	8.8	4.0	3.6	
합계	2,239	2,506	2,732	2,840	2,936	7.1
		11.9	9.0	4.0	3.4	

자료: Datamonitor analysis of ABI statistics

□ 단체 부문의 점차적 하락세와 개인 부문의 급격한 하락세로 인하여 2004년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계약자 수는 감소함.

○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계약자의 수는 2004년에 약 1%가량 하락함.

○ 이는 단체 부문에서 성장을 유지한 반면 개인 부문에서 계약자 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표 2> 영국 민영건강보험 가입자 수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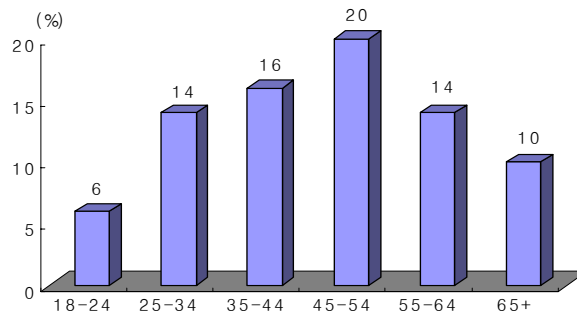
(단위: 천명, %)

	보험계약자 수 및 전년 대비 증가율					'00~'04 평균성장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개인	1,949	1,885	1,887	1,873	1,784	-2.2
		-3.3	0.1	-0.7	-4.8	
단체	4,517	4,704	4,840	4,812	4,788	1.5
		4.1	2.9	-0.6	-0.5	
합계	6,466	6,589	6,727	6,685	6,573	0.4
		1.9	2.1	-0.6	-1.7	

자료: Datamonitor analysis of ABI statistics

- 개인 부문은 계약자 수 감소에 따라 꾸준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단체 부문에서 보험요율 성장은 더디게 진행됨.
- 개인 부문의 보험료율은 2000~2004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으나 성장률은 단체 부문 보다 개인 부문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남.
 - 2000년 이후에 개인 부문에서는 매년 평균 8.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단체 부문은 평균 4.6%의 성장률을 나타냄.
- 최근 들어 고가의 치료가 쉽게 가능해 짐에 따라서 의료청구 (medical bills)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
- 암, 심장질환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증가로 인해 의료비가 상승 (medical inflation)하고, 이에 따라 개인 부문의 보험료 증가

<그림 1> 연령대별 민영건강보험 가입자 비율



자료: Datamonitor analysis of Ipsos MORI statistics

- ② 민영건강보험의 성장은 45~54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고, 이들 중 고소득층 계약자가 대부분을 차지함.

45-54세
고소득층의
민영건강보험
비중이 높아

- 젊은층과 노년층에서 보험침투도가 낮고, 45~54세의 20% 가량이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함.
- 연령별로 민영건강보험 소비자 통계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젊은층과 노년층에서 가장 낮음.

- 18~24세의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이들 연령대의 민영건강보험 증가율은 낮음.
- o 2005년 들어 45~54세와 55~64세의 보험계약자는 현저히 감소함.
 - 이는 보험계약자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과도하게 높은 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시장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임.
 - 또한 단체보험의 보장을 받는 소비자들은 은퇴하면 보상에서 배제가 되고, 이는 고령층에서 민영건강보험 가입 감소로 이어짐.
- o 민영건강보험의 침투도는 직장을 통해 단체 보험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고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45~54세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들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건강보험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음.

2004년에는
광고비
증가를 통해
민영건강보험
소비자 인식
높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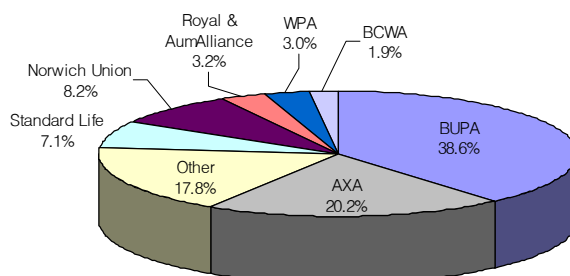
- ③ 보험회사들의 인식이 판매량 증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2004년에 민영건강보험 상위 5개 회사의 광고비 지출은 51.1% 증가
- BUPA가 2004년 마케팅에 활용한 미디어들은 2003년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2004년 광고비 지출은 76.4% 가량 증가함.
 - o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보험회사들에게 가장 친숙한 TV 광고로 지출됨.
 - o 이를 통해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증가시킴.

BUPA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가운데
Standard Life
빠른 성장세

- ④ BUPA의 시장점유율 증가율은 낮지만 여전히 시장지배력이 가장 큰 기업이며, Standard Life는 2004년에 다른 기업들 보다 훨씬 더 빠른 시장점유율 성장세를 실현
- BUPA는 민영건강보험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0.6% 증가하여 38.6%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냄.

- 민영건강보험시장에서 BUPA의 시장지배력은 2004년에도 유지된 가운데, 개인 부문에서 1% 가량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단체시장에서의 성장률은 낮게 나타남.
 - 반면 AXA PPP와 같은 경쟁기업들은 개인과 단체 부문에서 시장점유율이 0.2% 감소한 20%를 나타냄.
 - 민영건강보험시장에서 세 번째로 큰 기업인 Norwich Union은 2004년에 8.2%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어 전년과 비교해서 변함이 없었음.
- 2004년 민영건강보험시장에서 Standard Life는 다른 경쟁기업들보다 빠른 시장점유율 성장세를 시현함.
- Standard Life는 주도권을 가진 부문에서 수입보험료가 27.5% 증가하여 시장점유율이 1.3% 증가함으로써 시장점유율에서 가장 큰 변화를 나타냄.
 - 이에 따라 Norwich Union 과 Standard Life 사이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게 됨.
 - Standard Life는 2005년에 First Assist와의 거래를 통해서 Norwich Union의 시장점유율을 뛰어넘을 것이라 발표함.

<그림 2> 2004년 민영건강보험 회사별 시장점유율



자료: Datamonitor analysis of ABI statistics and SynThesys Non-Life database

- ⑤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향후 전망은 개인 부문의 성공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음.

향후
민영건강보험
시장의
전망은
개인 부문의
성공 여하에
달려

- 시나리오 1: 개인 부문의 성과 향상에 기반하여 민영건강보험시장의 성장
- 2004년에 개인 부문의 수입보험료는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Datamonitor와의 인터뷰에 응한 보험회사들은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개인 부문에서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임.
 - 시장에는 여전히 위기의 측면이 존재하지만, 민영건강보험 시장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긍정적임.
 - 이러한 시나리오는 민영건강보험 시장에서 상품 개발자들의 노력과 보험계약자의 수 사이에 정(positive)의 관계가 있다고 가정함.
 - 저비용의 상품을 제공하여 보험료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2005년에 개인 부문의 계약자 수는 증가할 것이고, 향후 2년간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평균보험료율이 감소하지만 개인 부문에서 경과보험료의 상승으로 인해 보험침투도는 증가함을 의미함.
 - 그러나 몇 년간 시장이 성장한 이후 단체시장에서의 경과보험료는 동일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일부 기업소비자(corporate customer)가 자가보험(self-insurance)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개인 부문의 판매 증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며, 이에 따라 단체 부문에서의 영업활동은 주춤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 시나리오 2: 개인 부문은 2005년에 성장하겠으나, 향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상품 혁신에 따라 2005년에 개인 부문의 약진이 예상되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며 개인 시장에서의 수요는 장기간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함.

- 광고와 상품 혁신에 따라 개인 부문의 침투는 증가하겠지만 2006년 이후 국민건강보험(NHS)에 대한 만족과 신상품이 대중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여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따라 개인 부문의 보험료는 6~7% 가량 증가할 것이며 보험계약자의 수는 몇 년 내에 감소하기 시작할 것임.
- o 개인 부문의 성장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지속적으로 단체 보험을 판매함으로써 공공 부문과 같은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확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함.
- 그렇지만 보험료 증가는 개인 부문보다 더 낮은 비율로 지속될 것이며 공급자들은 개인 사업보다는 기업과의 계약을 우선시하여 단체 부문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예상함.

*자료: Datamonitor, "UK Private Medical Insurance 2005", 2006.

(최영목 부연구위원)

3. 일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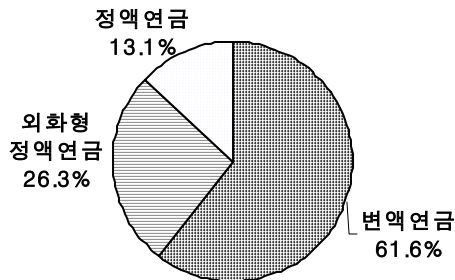
<일본, 방카슈랑스를 통한 개인연금 판매 현황>

2002.10~2005.9
방카슈랑스
총판매액
10조엔 도달

- 은행 창구판매가 시작된 2002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의 3년간 총 판매액은 10조 212억엔임.
- 상품별로는 변액연금(점유율 60.6%), 외화형 정액연금이 2조 6,360억엔(점유율 26.3%), 정액연금이 1조 3,177억엔(점유율 13.1%)임.
- 2005년 상반기(2005년 4~9월)는 반년동안 2조 5,000억엔 가까이 판매되어 판매가 가속화되고 있음.

변액연금이
전체
방카슈랑스의
61.6%로 가장
높은 점유율

<그림 1> 방카슈랑스 판매 현황



- 판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변액연금은 하트포드생명이 판매액 1조 9,207억엔으로 점유율 31.7%의 압도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트포드사는 2004년 9월부터 정액연금 시장에도 진출하였음.
- 2위사는 판매액 9,995억엔으로 점유율 16.5%의 三井住友海上 메트라이프 생명으로 2005년 1월부터는 외화형 정액연금을 판매하여 새로운 시장 확대에 의욕을 보이고 있음.

회사별 판매

순위는 1위

알리안츠, 2위

하트포드생명

- 3위는 판매액 6,246억엔, 점유율 10.2%의 住友生命으로 국내 대형사로는 방카슈랑스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임.
- 4위는 상반기 판매액에서는 2위를 나타내었던 ING 생명으로 5,007억엔임.
- 東京海上一同파이낸셜生命은 11위로 상반기에 1,000억엔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였음.
- 외화환산 정액연금은 알리안츠생명이 판매액 2조 1,000억엔, 점유율 79.6%로 독주하고 있음.
- AIG 에디슨생명, AIG 스타생명을 포함한 AIG 3사의 점유율이 90%를 초과함.
- 2004년 1월부터 참여하기 시작한 東京海上一同生命은 2,201억엔을 판매하는 등 실적이 신장되고 있음.
- 정액연금은 2005년도 상반기에만 1,000억엔을 판매한 富國生命이 2,929억엔으로 1위를 차지함.
- 그 결과,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된 개인연금판매액 기준으로 1위사는 알리안츠, 2위는 하트포드 생명, 3위는 三井住友海上메트라이프生命, 4위는 住友生命, 5위는 ING생명으로 나타남.
- 2005년 상반기를 볼때, 상품종류별 점유율은 변액연금이 70.4%, 외화형정액연금이 19.6%, 정액연금이 10.0%로 변액연금이 주력 종목임.
- 방카슈랑스는 2005년 12월에 일시납종신보험 등 취급 상품이 확대되어 2007년 12월에는 전면 허용이 예정되어 있음.

<표 1> 방카슈랑스를 통한 개인연금 판매실적(2002.10~2005.9)

(단위 : 억엔, %)

순위	회사명	보험료	2005년 상반기 실적
1	알리안츠	24,200 (24.1)	4,108
2	하트포트	20,889 (20.8)	5,785
3	三井住友海上 메트라이프生命	10,318 (10.3)	2,285
4	住友生命	6,275 (6.3)	2,162
5	ING	5,007 (5.0)	2,230
6	동경해상일동생명	4,506 (4.5)	523
7	메뉴라이프	4,039 (4.0)	1,213
8	三井生命	3,276 (3.3)	1,159
9	第一生命	3,083 (3.1)	685
10	富國生命	2,940 (2.9)	1,019
11	T&D파이낸셜생명	2,864 (2.9)	763
12	明治安田生命	2,811 (2.8)	166
13	AIG에디슨생명	2,730 (2.7)	242
14	日本生命	2,420 (2.4)	416
15	AXA생명	2,200 (2.2)	400
16	AIG스타생명	1,632 (1.6)	913
17	東京海上一同 파이낸셜生命	1,224 (1.2)	1,059
18	매스뮤추얼생명	659 (0.7)	326
19	크레디스위스생명	366 (0.4)	103
20	日本興亞生命	120 (0.1)	8
21	三井住友海上生命	99 (0.1)	9
22	PCA생명	82 (0.1)	28
23	共榮火災生命	47 (0.0)	10
24	아이오이생명	37 (0.0)	11
25	손보재팬생명	18 (0.0)	0
26	소니생명	1 (0.0)	0
합계		100,212	24,710

주 : ()은 점유율임.

*자료 : 保険毎日新聞, “銀行窓販・個人年金販賣ランキング” 總販賣額は10兆円に到達(02/10~05/09)”, 2006.1.6.

<금융청, 보험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금융청,
소액단기보험업
관련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 일본 금융청은 2005년 12월 28일, 「보험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여 관계정부령 등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시행은 2006년 4월 1일부터임.
- 보험업법의 규제에서 제외된 사업은 회사 또는 연결기준대상 자 회사가 종업원을 상대로 영위하거나, 학교가 학생들을 상대로 영위하는 등 1,000인 이하의 대상자를 둔 공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o 이와 같이 보험업법의 적용에서 예외였던 소액단기보험업, 즉 무인가공제사업도 2005년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이루어짐.

보험기간,
보험금액의
상한, 인수제한
피보험자 수,
최저자본금 및
공탁금 등 규정

- 소액단기보험업자가 인수하는 보험의 보험기간과 보험금액의 상한 등은 다음과 같음.
- ① 보험기간과 보험금액의 상한
 - 보험기간은 손해보험은 2년, 생명보험 및 의료보험은 1년
 - 보험금액의 상한은 질병에 의한 중증 장애 및 사망은 300만엔
 - 동일한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입원급부금 등은 80만엔
 - 동일한 상해에 의한 중증장애 및 사망은 600만엔
 - 동일한 손해보험은 1,000만엔
- (중증장애에서 급부를 지급한 경우, 사망에 의한 급부는 제한시키는 등의 조정규정이 있음)

- ② 소액단기보험업자의 피보험자 1인에 대하여 복수 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는 모든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이 1,000만엔 이하 또는 상기 보험을 구분하여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각각 구분된 한도액 이하임.

- 단, 손해보험 등, 특히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낮은 배상보험을 포함한 경우에는 별도로 1,000만엔으로 함.

- ③ 소액단기보험업자는 보험계약자에 관계된 피보험자의 총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보험을 인수해서는 안 됨.

- ④ 경과조치에 의해 시행일로부터 7년간 기존 사업자가 초과 부분을 재보험에 출재함에 따라서 인수할 수 있는 보험금액의 상한은 상기 보험의 구분에 맞추어 각각 정한 금액의 5배(질병 및 상해에 의한 입원급부 등에 대해서는 3배)로 함.

- 또, 소액단기보험업자의 대상인 사업규모에 대해 연간수입보험료(재보험에 출재된 금액은 제외, 재보험사로부터 수재된 보험료는 포함)를 50억엔 이하로 함.

- 최저자본금, 업무 개시 시점의 공탁금은 각각 1,000만엔으로 공탁금은 보험료수입의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됨(수입보험료의 5%).

- 소액단기보험업자가 사업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업무의 범위는 보험모집, 보험사고의 조사, 서류의 작성 등임.

*자료 : 保険毎日新聞, “保険業法施行令・施行規則改正へ 關係省令など 改正案 發表”, 2006.1.27.

(조혜원 선임연구원)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4		CY2005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성장률	4.7	3.3	2.7	3.3	4.5	5.2	
경상수지	7,565	7,333	5,877	2,603	2,649	5,430	
수 출	61,634	68,937	66,808	69,703	71,098	76,811	
수 입	54,708	61,688	60,627	63,695	66,228	70,688	
실업률	3.6	3.6	4.2	3.7	3.6	3.5	
금리	국고채(5년)	4.10	3.50	4.20	4.00	4.60	5.30
	회사채(3년)	4.03	3.72	4.34	4.41	5.00	5.52
소비자물가지수	115.6	115.5	117.0	117.6	118.3	118.4	
환율	원/달러	1,151.8	1,035.1	1,015.5	1,025.40	1,041.1	1,011.60
	엔/달러	110.9	103.76	106.91	110.9	113.3	117.45
종합주가지수	835.09	895.92	965.68	1,008.16	1,221.01	1,379.37	
외환보유고	174,448	199,066	205,447	204,986	206,731	210,391	

주: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CY2004				CY2005		
	1/4	2/4	3/4	4/4	1/4	2/4	3/4
보 험	48,649	64,808	71,449	94,002	55,643	71,225	77,359
생명보험	37,604	48,549	54,862	75,500	42,277	53,602	60,022
손해보험	11,045	16,259	16,587	18,502	13,366	17,623	17,337
은 행	-67,109	37,239	-1,871	-28,410	-20,297	176,673	96,532
일반계정	-11,707	40,699	19,734	-13,394	-30,494	196,056	84,452
신탁계정	-55,402	-3,460	-21,605	-15,016	10,197	-19,383	12,280
증 권	-5,145	5,049	-1,427	-11,172	16,898	11,948	17,618
투 신	170,435	-14,380	136,801	148,323	52,889	46,962	-37,592
종 금	-20,816	7,090	940	-18,256	19,416	2,048	-10,616

주: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이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 존 보 험	보험료	28,266	31,173	32,542	29,385	121,366	28,660	29,441	30,125
	성장률	18.3	17.4	-12.1	4.2	4.9	1.2	-5.6	-7.4
	구성비	23.3	24.6	20.9	21.9	22.6	20.9	20.8	17.2
사 망 보 험	보험료	61,844	63,199	64,497	65,798	255,338	66,402	67,289	68,182
	성장률	11.2	12.9	11.8	9.6	11.3	7.4	6.5	5.7
	구성비	51.0	49.9	41.4	49.1	47.5	48.5	47.5	38.8
생사혼합 보 험	보험료	20,028	20,264	20,279	19,076	79,646	18,312	18,700	18,070
	성장률	-14.6	-11.8	-22.4	-13.0	-15.7	-8.6	-7.7	-10.9
	구성비	16.5	16.0	13.0	14.2	14.8	13.4	13.2	10.3
변액보험	보험료	2,785	3,293	6,256	11,456	23,789	12,093	16,215	24,761
	성장률	202.8	189.9	94.9	386.3	212.2	334.3	392.4	295.8
	구성비	2.3	2.6	4.0	8.6	4.4	8.8	11.5	14.1
개 인 보 험계	보험료	112,923	117,929	123,574	125,714	480,140	125,408	131,646	141,137
	성장률	8.7	10.6	-0.4	11.7	7.4	11.1	11.6	14.2
	구성비	93.2	93.1	79.4	93.9	89.3	91.6	93.0	80.4
단 체 보 험	보험료	8,262	8,769	32,158	8,177	57,366	11,526	9,891	34,486
	성장률	-18.3	8.3	4.3	5.8	1.1	39.5	12.8	7.2
	구성비	6.8	6.9	20.7	6.1	10.7	8.4	7.0	19.6
전 체	보험료	121,185	126,698	155,732	133,891	537,506	136,934	141,537	175,623
	성장률	6.3	10.4	0.5	11.4	6.7	13.0	11.7	12.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15,433	15,680	18,243	21,794	71,150	17,888	18,534	21,078
	증가율	13.4	14.6	18.5	24.1	18.1	15.9	18.2	15.5
	지급률	54.6	50.3	56.1	74.2	58.6	62.5	63.0	70.0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20,345	21,657	23,811	24,863	90,676	22,699	24,360	24,793
	증가율	21.2	21.7	24.8	19.7	21.8	11.6	12.5	4.1
	지급률	32.9	34.3	36.9	37.8	35.5	34.2	36.2	36.4
생사혼합보험	지급보험금	25,356	23,603	25,595	27,781	102,335	24,453	25,818	35,996
	증가율	-24.0	-24.6	-10.6	3.4	-14.8	-3.6	9.4	40.6
	지급률	126.6	116.5	126.2	145.6	128.5	133.5	138.1	199.2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399	404	635	1,467	2,905	598	847	1,509
	증가율	468.5	283.1	207.9	353.0	311.6	49.9	109.4	137.5
	지급률	14.3	12.3	10.2	12.8	12.2	4.9	5.2	6.1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61,534	61,344	68,284	75,905	267,067	65,638	69,558	83,377
	증가율	-3.6	-2.5	7.9	15.8	4.5	6.7	13.4	22.1
	지급률	54.5	52.0	55.3	60.4	55.6	52.3	52.8	59.1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11,101	10,492	11,948	15,618	49,159	14,651	11,957	16,466
	증가율	-27.5	-17.0	-28.9	-8.7	-20.5	32.0	14.0	37.8
	지급률	134.4	119.7	37.2	191.0	85.7	127.1	120.9	47.7
전체	지급보험금	72,635	71,836	80,232	91,522	316,226	80,289	81,515	99,843
	증가율	-8.2	-4.9	0.2	10.8	-0.4	10.5	13.5	24.4
	지급률	59.9	56.7	51.5	68.4	58.8	58.6	57.6	56.9

주: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 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보험	사업비	3,377	3,623	3,725	5,851	16,576	3,775	4,331	5,010
	증가율	9.0	10.8	-11.0	64.2	17.4	11.8	19.5	34.5
	사업비율	11.9	11.6	11.4	19.9	13.7	13.2	14.7	16.6
사망보험	사업비	15,836	16,112	16,208	20,444	68,599	16,078	15,790	16,913
	증가율	9.0	9.1	1.9	23.9	11.2	1.5	-2.0	4.3
	사업비율	25.6	25.5	25.1	31.1	26.9	24.2	23.5	24.8
생사혼합보험	사업비	2,078	3,176	4,291	5,443	14,988	5,444	5,497	5,828
	증가율	21.4	82.6	96.2	170.9	96.0	162.0	73.1	35.8
	사업비율	10.4	15.7	21.2	28.5	18.8	29.7	29.4	32.3
변액보험	사업비	-	-	-	-	-	-	-	-
	증가율	-	-	-	-	-	-	-	-
	사업비율	-	-	-	-	-	-	-	-
개인보험계	사업비	21,291	22,910	24,225	31,737	100,164	25,298	25,618	27,751
	증가율	10.1	15.9	8.7	43.8	20.0	18.8	11.8	14.6
	사업비율	18.9	19.4	19.6	25.2	20.9	20.2	19.5	19.7
단체보험계	사업비	572	605	706	1,203	3,087	686	734	935
	증가율	-6.9	-7.3	-1.1	60.4	13.0	19.9	21.2	32.5
	사업비율	6.9	6.9	2.2	14.7	5.4	6.0	7.4	2.7
전체	사업비	21,863	23,516	24,931	32,941	103,251	25,983	26,351	28,686
	증가율	9.6	15.1	8.4	44.3	19.8	18.8	12.1	15.1
	사업비율	18.0	18.6	16.0	24.6	19.2	19.0	18.6	16.3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4				FY2005		
		2/4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료	664	825	685	2,937	794	751	913
	성장률	-12.8	-6.4	-1.0	-7.1	4.1	13.2	10.7
	구성비	1.2	1.3	21.2	1.3	1.3	1.2	1.3
해 상	보험료	1,410	1,263	1,135	5,071	1,399	1,412	1,280
	성장률	1.8	9.7	-13.3	-3.2	10.7	0.2	1.3
	구성비	2.5	2.0	2.0	2.2	2.3	2.3	1.8
자동차	보험료	21,528	21,991	20,838	85,208	21,386	22,062	22,342
	성장률	4.2	8.3	5.8	7.0	2.6	2.5	1.6
	구성비	37.7	35.3	36.4	36.7	34.9	35.5	32.2
보 증	보험료	2,179	2,218	2,268	9,018	2,255	2,391	2,791
	성장률	-3.6	-1.8	-8.3	-4.3	-4.2	9.7	25.8
	구성비	3.8	3.6	4.0	3.9	3.7	3.9	4.0
특 종	보험료	5,088	5,691	4,507	20,369	5,745	5,744	6,263
	성장률	14.2	10.7	14.6	12.7	13.0	12.9	10.1
	구성비	8.9	9.1	7.9	8.8	9.4	9.3	9.0
해외 원보험	보험료	214	188	186	796	129	143	164
	성장률	38.4	15.3	7.0	26.7	-37.8	-33.0	-13.0
	구성비	0.4	0.3	0.3	0.3	0.2	0.2	0.2
장 기	보험료	23,553	24,710	25,295	96,353	26,459	27,435	28,736
	성장률	12.2	13.3	14.3	12.3	16.1	16.5	16.3
	구성비	41.3	39.7	44.2	41.5	43.2	44.2	41.4
개 인 연 금	보험료	1,680	1,695	1,679	6,799	1,684	1,715	1,788
	성장률	-1.5	-1.3	-3.9	-1.1	-3.5	2.1	5.5
	구성비	2.9	2.7	2.9	2.9	2.8	2.8	2.6
퇴 직 보 험	보험료	715	3,642	579	5,622	1,383	410	5,162
	성장률	84.3	4.4	-22.9	13.6	101.8	-42.7	41.7
	구성비	1.3	5.9	1.0	2.4	2.3	0.7	7.4
계	보험료	57,031	62,222	57,172	232,173	61,236	62,063	69,438
	성장률	8.1	9.3	8.1	8.6	9.8	8.8	11.6

주: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4			FY2005		
		2/4	3/4	4/4	1/4	2/4	3/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58.8	54.8	56.4	38.8	42.8	41.2
	사업비율	54.7	55.6	55.0	53.8	52.3	55.2
	합산비율	113.5	110.4	111.4	92.6	95.1	96.4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51.3	49.3	49.5	42.8	50.3	49.8
	사업비율	31.5	32.7	30.0	28.3	29.3	32.2
	합산비율	82.8	82.0	79.5	71.1	79.7	82.0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72.3	72.7	72.7	71.5	73.0	76.8
	사업비율	31.2	31.8	32.2	30.6	31.1	31.4
	합산비율	103.5	104.5	104.9	102.0	104.1	108.3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27.6	21.9	25.3	27.9	10.7	-1.0
	사업비율	16.6	16.2	20.5	12.8	18.4	17.2
	합산비율	44.2	38.1	45.8	40.7	29.1	16.2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47.4	46.5	52.0	40.3	47.0	48.0
	사업비율	22.5	25.0	26.5	25.1	24.9	25.6
	합산비율	69.9	71.5	78.6	65.4	72.0	73.6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44.3	49.4	41.0	29.1	43.3	55.6
	사업비율	83.0	89.8	80.2	73.1	65.6	64.8
	합산비율	127.3	139.2	121.2	102.2	108.9	120.4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6.6	87.1	87.9	85.6	85.6	85.7
	사업비율	15.8	15.7	15.4	15.6	15.9	16.2
	합산비율	102.4	102.8	103.3	101.2	101.5	128.6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8.4	118.1	123.8	117.6	118.7	119.1
	사업비율	10.4	10.4	10.5	9.9	9.6	9.6
	합산비율	128.8	128.5	134.3	127.4	128.4	128.6
전 체	경과손해율	76.6	76.6	77.7	75.3	75.9	77.0
	사업비율	22.6	23.0	23.2	22.1	22.6	22.9
	합산비율	99.2	99.6	100.8	97.4	98.5	99.8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 2000-6 금융검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 2002-1 국내외 보험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7
-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7

- 200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 임병인, 김세환 2004.9
- 2004-5 신용리스크 전가시장과 보험회사 참여에 대한 연구 / 주민정, 조재현 2004.10
- 2004-6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마케팅 전략 / 류건식, 신문식, 정석영 2004.12
- 2004-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이순재 2005.1
- 2005-1 보험산업의 비전과 대응전략 / 신문식, 임병인, 조재현 2005.
- 2005-2 전환기의 손해보험회사 발전방안 / 정중영 2005.
- 2005-3 손해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나우승, 김해식 2005.5
- 2005-4 저금리 추이에 따른 이차역마진 현상과 대응방안 / 김석영, 나우승 2005.10
- 2005-5 예금보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평가와 개선방안 / 류건식, 김해식 2005.10
- 2005-6 모집조직 다변화에 따른 보험모집제도 개선방안 / 신문식, 조재현, 박정희 2005.11
- 2005-7 퇴직연금제도 재정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상우 2005.11
- 2005-8 민영건강보험의 의료비 지급·심사제도 개선방안 / 조용운, 김세환 2005.11
- 2005-9 보험산업 주요지표의 중장기 전망 / 동향분석팀 2005.12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옥 2006.1

■ 연구조사자료

-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희, 2000.3
-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
2본부, 2001.1
- 2001-3 지방재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희, 2001.3
-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
- 2005-1 금리 시나리오 생명모델 연구 / 김석영 2005.3
- 2005-2 2005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신문식, 김세환, 조재현 2005.3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정책 연구자료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3.12
- 2004-1 200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4.11
- 2005-1 영국 통합금융업법상 보험업의 일반성과 특수성 /한기정 2005.2
- 2005-2 200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동향분석팀 2005.1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영문 발간물

-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 이기형,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태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19호 공정가치회계가 보험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 CEO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이기형, 김해식 2004.10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해성, 2000. 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 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 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 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 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 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 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 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 6
- 2002-3 중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 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 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 10
-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 10
-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 2
-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 3
-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 6
-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 7
-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 7
-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 8
-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 12
-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 2
-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 2
-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2
-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3
- 2004-6 역모지기 (Reverse Mortgage) 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4. 3
-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 6
-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 2004. 7
- 2004-10 자동차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 4
- 2004-11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의 참여전략 / 손해보험본부, 2004. 9
- 2004-12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대한 해외보험사 CEO들의 인식과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4. 10
- 2004-13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4. 11

2004-14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도입과 향후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4. 12

2005-1 생명보험 계약자 속성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5. 3

2005-2 민영건강보험의 리스크관리 방안 / 보험연구소, 2005. 4

2005-3 차명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도입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3

2005-4 FY2005 수입보험료 전망 / 보험연구소, 2005. 6

2005-5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한 합리적인 차량수리비 관리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5. 7

2005-6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와 CAT 모델 / 손해보험본부, 2005. 7

2005-7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감소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5. 7

2005-8 국가 암조기검진 사업 및 국민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암보험 대응방안 / 보험
연구소, 2005. 10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정기간행물

■ 월간	_____
○ 보험통계월보	
■ 계간	_____
○ 보험동향	
○ 보험개발연구	
■ 연간	_____
○ 보험통계연감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	-보험개발연구 (연간3회~4회) ₩ 30,000)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보험동향 (계간 ₩ 20,000)

※특별회원 가입대상: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보험개발원 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영광서적

『보험동향』

2006년 봄호(통권 37호)

2006년 3월 10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등 록 1997. 7. 15. (바-2873)
대표전화 (02) 368-4000
인쇄소 한컴닷컴
전화 (02) 2277-7311

정가 6,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77, 368-4183)으로 하여 주십시오.